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향’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1. 두 개의 상충된 2020 프로젝트

발제자의 올바른 지적이 있다. 국방 당국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은 일종의 소수정예 군대라는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 국력 신장에 걸맞는 정예 군사력 확보와 통합 전력의 기능 극대화를 핵심으로 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 문민통제 강화 및 신뢰받는 군인상 확립 등이 그것

■ 박종화 목사

-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박사
- W.C.C. 중앙위원
- 경동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일 것이다.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점증하는 다자간 안보체제의 필요성, 특히 개방된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이 효율적인 국방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들 교회가 진행시킨 지 10여 년이 되는 ‘비전2020’은 현금의 국방 개혁 구상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주로 ‘22만 군장병 세례와 전국민 75% 기독교신자화’라는 양적 목표 달성을 내걸고 그에 따른 병영 내의 각종 신자화 프로그램이며, 병영 밖의 교회의 동참과 지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숫자에 치중하다 보면 국방 의무를 당연히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보다 단기 일반사병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자화는 직업군인 쪽으로 그 방향을 심각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문제와 답은 나와 있다고 본다. ‘국방개혁 2020’이 일종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효율화라 한다면, ‘비전2020’은 “소품종 다량 생산”의 거대화라 할 것이다. 답은 하나이다. 곧 후자는 전자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스스로를 동참된 전자에 따라 스스로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발제자의 주장대로 국방 개혁이 군 전반의 “경량화와 기동화”로 진행되는 반면, 군신자화는 “저기능과 노동집약적” 전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가비판적 진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고강도 전투력을 소유한 군대라 해서 군의 정신전력이 정비례하여 증강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신전력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군중 활동의 실질적 비전

첫째로 발표자는 현역 군목의 자기 평가 설문 결과 통상적인 목회직

수행(61%), 야전식 군사활동 참여(25%), 둘 사이의 균형 유지(12%)라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군중 활동의 어려움으로 군목의 잦은 임지 이동으로 인한 가정 생활의 불안정성, 군인사 이동으로 인한 지속적 신자교육의 난관, 특히 지휘관과의 쉽지만은 않은 관계 등을 꼽고 있다.

논찬자의 생각으로는 ‘군중 활동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난관의 편차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군대사회라는 특수사회를 전제로 할때 일반 성직과 특수 군중직이 반반씩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는 별도의 비율이 아니라 상보관계에서 말하는 반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 의무복무자는 논외로 치고, 장기 직업군목의 경우 “군복 입은 목사” 또는 “군인인 목사”라 전제하면 많은 난관이 풀리지 않을까 한다.

둘째로 군중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발제자는 “연합 군목 파송기관”의 설립과 현장의 군중 활동을 체계화할 “군중 목사단”의 실질적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는 군체제 내부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전자의 경우, 현재의 군목 파송 교단들의 형편을 볼 때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단, 대안으로 일단 군중후보생이 되면, 입대하기 전에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군중업무 전반에 관한 사전 교육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군중장교 예비학교>(가칭)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경비는 소속교단이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셋째로 신자화 운동의 대상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일반 사병 중심의 신자화 및 수세운동은 군 병력 축소의 경우에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군의 경량화는 필연적으로 군중장교의 경량화

를 낳는다. 따라서 부사관과 장교들을 선교 역군으로, 곧 간접 목회 동역자로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군목의 목회자질 향상은 물론 목회교육의 다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는 각종 “사관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군종이 취급하는 영역이 과목화 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본다.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교수



2000년 6월 15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로 보여졌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민족 통일을 전망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번 만남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 있었던 남북한 두 정

■ 강사문 교수

- 히브리 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구약학)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상의 만남으로서 실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각자의 체제 속에서 치열한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자의 한계와 문제점을 절감하고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에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전쟁과 고통 속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경주해 왔으나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서, 우리의 통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며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한다.

1.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과 태도

1) 북위 38도 선으로의 남북 분단

올바른 통일로 향하는 길은 분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있다. 병이 생기는 것은 쉽지만 고치기는 어려운 것처럼 분단은 쉬워도 통일은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반도 분단의 기본 구조는 복잡적이다. 열강 제국의 규정력과 분단지향 세력과 분단항거 세력 등 삼각 구도에서 분단이 형성되고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왜 한반도는 8·15해방과 함께 북위 38도 선을 마주보고 남북으로 양분되었는가? 분단 고착의 과정 속에서 남북체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1) 남북 분단의 외인(外因)

8·15광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던 광복의 감격은 곧 분단의 비극으로 전개되었다. 한반도 분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변 강국들의 주도권 싸움에서 제기된 강자들의 판단 결과이다. 특히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3년 휴전협정 때까지 분단선이었던 북위 38도 선은 1896년 러·일협상 때에 일본이 러시아의 한반도 남진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게 북위 38도 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양분할 것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운명의 분단선이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되기 5일 전인 1945년 8월 10일에 미국이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작전 상의 방편으로 북위 38도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을 분할하여, 38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고 이남은 미국이 관리하자는 안을 소련에 제안하자 소련이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분단의 한이 맺힌 한(恨)의 38선이다. 이 사건이 한반도 분단 역사의 출발이다. 따라서 분단의 원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 자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분단 구도의 시작은 외세(外勢)에 의해 결정되었다.

(2) 남북 분단의 내인(內因)

민족 분단의 내인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부터 대립된 민족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여 해방 후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외세에 의존하여 분단 국가 수립을 획책한 일부 정치 세력의 책동에 국민들이 동조한 결과로 분단이 고착되었다. 분단의 내적 요인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나,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분단의 문제는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서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체제가 약화되고 반면에 사회주의적 기류가 강해지는 양면성과 상관된다. 더욱이 8·15광복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지만, 특히 하층계급에 속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자본주나 지주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는 이중적 자유의 해방이었다.

② 당시 북한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의 이상과 소련의 사회혁명주의 사

상이 결합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실시되자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은 급속히 번져 나갔다. 그 이유는 이런 사회주의 맥락에서 우리는 지역 또는 역사적으로 소련과는 오랜 관계를 맺어왔으며 해방 후 이런 사회주의 세력이 햇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③ 세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의 대결 장소인 한반도에 양대 세력과 관계된 두 체제가 나타났으니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다. 김일성 공산집단은 그들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위해 인민 해방 통일 전선에 매진하였다. 한편 남한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받들어 조국 통일의 길을 모색했다.

④ 그러나 통일 정부의 꿈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신탁통치에 대한 태도에서 좌절되었다. 찬탁과 반탁의 과정에서 남한에서는 좌우익의 충돌로 혼미에 혼미를 거듭했으며 결국 신탁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서 북한의 찬탁은 소련의 명령에 따른 결과로 외세에 복종한 것이 되었고, 남한의 우익은 미국의 안에 반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군정과 결속한 셈이 된다. 따라서 신탁을 놓고 좌우익의 찬·반탁의 충돌은 남북 분단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었고, 미·소의 신탁통치안은 한반도에 그들의 세력을 부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탁통치에 실패한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유엔 결의에 따라 1948년 2월 한국의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동년 5월 10일에 남한 내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탄생했으며, 그 해 9월에 북한도 인민공화국 정부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되기 시작했다.

⑥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인해 인민 해방 통일의 꿈이 좌절된 김일성은 그의 통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 하에 인민 해방 통일

전쟁을 행한 것이 곧 6·25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유엔군이 즉각 전쟁에 개입하자 북한군은 퇴각했고 3년 간 지속된 비극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분단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⑦ 한국전쟁 후 남북의 대치상황은 극한 상태로 치닫는다. 북한은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지속하였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반공사상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합하여 남북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⑧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주변환경도 많이 변화하였고 따라서 남북 모두가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의 민족 번영을 위해 궤도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이 핵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민족 통일과 번영의 세기가 되도록 힘을 경주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 분단에 대한 인식 변화

분단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6·25전까지는 민족-반공통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이었다. 북한 역시 무력을 통한 남진통일이었다. 1980년대 후로 우리는 승공통일, 북한은 적화통일을 주장했고, 1990년대 와서는 남한은 흡수통일, 북한은 자주 통일을 자주 이야기했으며, 요즈음은 쌍방이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전쟁 전후에는 서로 잊을 수 없는 원수(이승만)로, 그 다음에는 원수에서 동반자(노태우)로, 지금은 동반자에서 한겨레의 형제자매로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과거의 불신과 반목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성경의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다윗-솔로몬 왕국의 분단 역사와 그 통일 노력

위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경에서 분단과 통일 노력을 경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검토하여 성서적 교훈을 얻고자 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줄 순 없어도 이스라엘 분단과 통일 노력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따라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분단의 역사와 통일 노력 속에 나타난 성서적 교훈을 찾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1.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단

다윗 왕에 의하여 통일된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 때까지 1세기에 가까운 통일 왕국이 계속되었으나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었다. 그 후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35년 간 남유다는 남쪽 유다의 영토를 보존하다가 주전 586년 신 바빌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2500년 간 이상을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다가 주후 1948년에 비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웠다.

1) 분단의 때와 기간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분단 상태는 르호보암이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인 주전 922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분단의 고통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인 주전 72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 200년 간의 분단의 역사가 있었다.

분단 기간 중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르호보암 왕(주전 922-915)으로부터 12번째인 왕인 아하스 왕(주전 735-715) 때까지, 북왕국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주전 922-901)으로부터 19번째 마지막 왕 호세아(주전 732-721) 때까지 분단 대치 상태였다.

2) 분단의 원인

왜 남북 왕조는 분단되어야만 했는가?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분단의 원인을 설명하는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에는 분단을 조장한 외세(外勢) 같은 외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내적 요인들은 어떤 것들인가?

(1) 솔로몬의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에 지친 북쪽 이스라엘 대표들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그때까지 지속된 강압 정책에 선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왕상 12:10-11).

왕이 북쪽 지파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렇게 거절함으로 북쪽 지파 대표들은 실망한 나머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됨으로써 남북은 분단되었다. 유다 지파만을 제외한 열 지파를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왕상 12:16).

(2) 분단의 원인은 분단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분단 전에 실로 예언자 아히아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왕상 11:31-34; 대하 9:29).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분단은 우리가 말하는 구조적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메잇티 니헤야 핫다바르 핫제, 왕상 12:24; 대하 11:4)라는 말씀이나, 예언자 아히아가 예언한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왕상 11:29-39; 대하 10:15)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난다.

(3)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분단을 주도할 인물, 즉 솔로몬 왕에 반기를 들었다가 목숨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등장이다. 이런 주도적인 인물이 없었다면 분단이 어려울 것이다.

(4) 분단의 심층적인 원인(遠因)은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들에 의하여 기름부음을 받아(삼하 5:1)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 때에 예루살렘은 유다지파 영역도 아니고 북쪽 베냐민지파 영역도 아닌 여부스 땅이었으므로 정치적으로 남북은 연합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이원화로 구분되었다. 또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도 다윗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남쪽 유다지파의 공인된 왕이지만 북쪽지파로부터는 공인을 받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로몬과 북쪽 지파 간에 이런 군신 간의 신뢰도 없이 북쪽 백성들은 억압만 당하고 강압과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니,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과 백성들 간에 이런 언약과 요구갱신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결국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자의 길로 간 것이 곧 분단인 것이다.

분단의 결과 우리의 38선과 같은 분단선은 서쪽의 욥바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 방향의 계절로 이어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벤엘로 이어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여리고를 지나 사해를 건너 요단 동편의 디분으로 연결되는 선으로 남북이 분단된다.

3) 분단 시대의 남북관계(주전 922-721)

분단의 결과로 남북의 분단 시대가 시작되어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남북관계는 어떤 상태였으며 양쪽의 갈등과 대치와 협력관계는 어떻게 지속되었는가?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가졌던 북왕조를 중심으로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분단 직후 50년 간의 남북전쟁(주전 922-876, 왕상 12:15; 대하 11:16)

①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자기를 배반한 북쪽의 열 지파를 공격하여 국토와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북진 무력통일을 계획하였다(왕상 12:21-24; 대하 11:1-4).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18만의 병력으로 모집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에게 전쟁을 포기할 것을 권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북으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왕상 12:24).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기 때문에 분단 당시 르호보암의 북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종교적 이유(여호와와 말씀)와 윤리적 이유(형제와 싸우지 말라) 때문에 중도에 포기된 것이다.

이는 아마도 르호보암의 남왕국을 장악할 능력 부족과 북쪽 지역의 산악전을 해낼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분함으로 평생 북쪽 땅 회복을 위해 북진통일을 의도했으나 애굽 왕 시삭의 침입으로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적을 막기 위해 유다 변방을 축성할 때에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을 축성하였지만 북쪽 분단선에는 축성하지 않은 것은 남쪽 분단선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대하 11:5-12). 이것은 또 그의 아들 아비얌이 북진통일을 목표로 북진하여 벤엘을 넘어 오브라, 여사나와 에브론 등 베냐민 지파의 북쪽 땅을 다 점령하였다는 데서도 남왕국 르호보암 부자(父子)의 북진통일의 의욕이 엿보인다(대하 13:19).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대치 상태에 있는 상대 이스라엘을 적(敵)으로 또는 악마(惡魔)로 표현하지 않고 너희 형제(兄弟)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같은 동족끼리 분단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만 적개심이 가득찬 상태로 상대편을 적대자(敵對者)로 보기보다는 한 조상의 후손인 형제로 이해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말이다. 또 르호보암 왕의 북진계획을 수포로 돌린 스마야를 왕은 반국가적 이적죄로 처단하지 않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② 분단 시대 다음으로 계속된 전쟁은 북쪽의 바아사와 남쪽의 아사와의 전쟁이다(왕상 15:16-22; 대하 16:1-6). 유다 왕 아사(913-872)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900-877)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왕상 15:16)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0년 이상 전쟁이 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왕국의 2대 왕인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 바아사는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남북도로와 동서왕래를 통제하고, 남유다를 통제하기 위해 유다 땅인

라마 성을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북의 위협에 놀란 아사 왕은 자체 병력으로 바아사의 침공을 막기 어려워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했다.

분단 초기에 특이한 점은 분단 50년 전반기에는 항상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점과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는 점이다. 아사는 시리아의 도움으로 위기는 극복했지만 외세에 의해 영토가 점령되는 비운을 맞본 것이다. 또한 이 기간 중반부터 남북 양국 모두가 외세의 침공에 시달렸으므로 어느 한 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 통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오므리왕조 시대의 남북의 우호관계(876-849, 왕상 22-왕하 8; 대하 18-)

3대에 걸쳐 40여 년 간 지속된 오므리왕조 시대에는 남북 사이에 협력과 교류가 있었던 평화 공존의 시대였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오므리왕조는 남북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이스라엘 골짜기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도로의 중심지에 있었으므로 국제적으로 팽창하기도 쉽고 제국의 침공을 쉽게 받을 위험성도 있었다. 우선 국제 외교에 있어서 오므리 왕은 두로의 왕 이토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와 두로 왕국과 사돈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게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시리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에돔과 모압을 지배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했으므로 앗수르 비문에는 오므리 집으로 알려졌다.

남유다와의 관계는 아합 왕의 딸(왕하 8:18; 대하 21:6, 혹은 누이)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킴으로 남북 왕조 사이도 사돈관계가 되었다. 이런 정략결혼으로 인해 오므리왕조는 국제관계에서 시리아와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동맹관계로 변했고, 남북의 50년 간 적대적 관계도 형제관계로 변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사돈이 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군사 청원을 하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왕상 22:4; 대하 18:3).

이런 평화적 우호관계는 최소한 40년 간의 오므리왕조 시대에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유다의 여호람은 처남인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를 도우러 갔던 것 등은 양국관계가 형제관계 이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평화 공존의 관계는 정략적인 결혼 정책에서도 연유하지만 힘에 우위에서도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왕조 오므리왕조는 예후에 의해 망하기까지 강성한 국가였으므로 약한 남유다는 우호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다. 오므리왕조 시대에 있었던 남북의 군산 협력관계를 살펴보자.

①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의 공동군사작전(왕상 22:1-36)

2회에 걸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시리아에 빼앗겼던 라못을 되찾기 위해 라못을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군원을 청하자 여호사밧은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은 것이니’ (4절)라고 하면서 쾌히 승낙하고 전쟁에 동참할 것을 수락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신탁은 출전에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강행한 아합 왕은 라못 전투에서 전사하는 비운을 맞았다.

② 북왕국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의 모압 공격을 위한 군사연합작전(왕하 3:1-27)

오므리왕조의 봉신이었던 모압은 아합 왕이 죽자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851-840)은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군 파견을 요청하자 여호사밧은 아합 때처럼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은 것이니’ (7절)라고 하면서 쾌히 승낙하였다. 예돔까지 가세한 삼국동맹군은 예돔 광야길로 모압을 공격하였으나 모압 왕

메사가 그의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림으로 모압이 승리한 것으로 메사비문은 전한다.

③ 북왕국 여호람(요람)과 남왕국 아하시야와의 시리아 공격을 위한 연합군사작전(왕하 8:25-29; 대하 22:1-6)

아합과 여호사밧의 패전으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다시 유다 왕 아하시야(842)와 연합군을 편성해 탈환을 재시도하였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외손자요 아합 집의 사위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라가 아합의 딸이요 오므리의 손녀였기 때문이다(왕하 8:27). 여호람의 요청으로 아하시야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유다 왕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귀가했으나 예후에 의해 살해당하므로 오므리왕조는 막을 내렸다. 동시에 여호람을 병문안하러 갔던 아하시야 왕도 예후의 손에 죽었다(대하 22:8-9).

40여 년 간의 오므리왕조 시대의 평화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국력의 우위에서도 관계 되었다 할지라도, 동족간의 신뢰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본다. 그러나 남쪽의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는 이러한 평화 공존의 시대가 이방신을 유입하여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시대로 단죄받았다.

(3) 예후왕조 시대(842-746, 왕하 9:1-10:36)

북왕국에는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왕조가 약 100년을 지나면서 남왕국의 갈등과 대치 속에서 전쟁도 수행했다. 예후가 왕에 즉위하게 된 배경은 앗수르의 살만에셀 3세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후는 친 앗수르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전 9세기 말부터 8세기에는 앗수르의 전성시대이므로 5대에 걸친 예후왕조 시대 내내 친 앗수르 편에 서지 않으면 왕조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외세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당시는 북쪽의 두 세력 즉 앗수르와 시리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의 흐름에 따라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언자의 후원을 받은 예후는 시리아 전투에서 부상한 여호람을 살해하고 아합 가문 70명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왕하 10:1-11) 여호람을 문안하러 왔던 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42명의 그 형제들도 전멸시켰다(왕하 10:12-14).

이런 유다 왕족의 몰살로 유다 왕가에 정치적 공백이 생겼으나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달라가 나머지 왕족을 죽이고 섭정을 하였다. 다행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졌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등극하여 왕권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남북의 우호관계는 사라졌고 아마샤(800-783)와의 대결전쟁이 있었다(왕하 14:8-14; 대하 25:17-28).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여호아스)에게 벤세메스에서 대결전쟁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북쪽 요아스 왕은 비유를 들어 거절하지만 에돔을 정복하고 자신만만한 아마샤는 요아스의 말을 묵살했다. 그러자 요아스는 벤세메스로 내려와서 아마샤를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헐고 금은과 세간을 빼앗고 사람을 불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전쟁터인 벤세메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가 아니고 유다 영토 안에 있으므로 침략이나 통일전쟁도 아니고 남북의 힘의 우위를 가려볼 대결 전쟁인 것 같지만 어떤 명분 있는 전쟁도 아니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남북을 통일할 의도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후 아마샤는 요아스보다 십오 년을 더 살다가 살해당했다(대하 25:27).

(4) 마지막 외세에 휘말린 마지막 분단시대

약 20년간 지속된 마지막 분단시대에 북왕국은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

야 외에는 4명의 왕위 찬탈이 반복되었던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앓수르가 고대 중동 전역을 석권하는 때이므로 남북 양국은 외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왕국의 베가 왕은 시리아의 세력을 업고 무모한 남침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하였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친 앓수르 편이었지만 애굽을 믿고 반 앓수르운동을 전개하다가 나라의 운명을 끝낸 비극의 주인공이다.

① 북왕국 베가 왕(737-732) 주전 734년에 남유다 침공(왕하 16:5-18; 대하 28:1-27).

이 전쟁은 남북간의 싸움이지만 민족 통일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단지 외세와 함께 후한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었다. 공격 전 이스라엘 왕 베가는 시리아 왕 르신과 연합군을 만들어 앓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남쪽 유다도 이 연합군에 가담할 것을 아하스 왕에게 청원하였다. 그러나 친 앓수르 정책을 폈던 유다 왕 아하스가 이런 제의를 거절하자 시리아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앞으로의 후한을 없애기 위해 먼저 유다를 침공하였다. 이것이 소위 주전 734년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Syro-Ephraimite war)이다.

이런 위기에 접한 아하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언자 이사야는 임마누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사 7:8-9). 그러나 아하스는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한 후에 재빨리 성전과 왕실에 있는 금을 모아 앓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보내고 원병을 청하였다(왕하 16:7-8). 이때 앓수르 왕은 아하스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내려와 르신을 죽이고 백성을 기르로 옮겼다. 앓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파괴되었고(왕하 15:29),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만 남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 살해되고 호세아는 친 앓수르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

했다. 한편 앓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는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친 앓수르 정책으로 생존이 보전된 셈이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은 북쪽에 의한 남침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이다. 6·25 한국전쟁처럼 남침한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살해하는 참극을 벌였으며, 부녀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고 엄청난 재물을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런 참극은 유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대하 28:5-8). 개선장군으로 사마리아에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선지자 오벳은 이런 참극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고 반문하며 잡아온 형제 포로들을 귀환시킬 것을 종용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기 때문이다”(10-11절)고 했으며, 그래서 여리고로 데려다가 귀환시켰다(12-15).

이 전쟁의 특징은 남북 양쪽이 모두 외세를 전쟁에 끌어들인 점이다. 북쪽의 베가는 시리아를 지원자로, 남쪽의 아하스는 앓수르를 지원자로 삼아 각각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왕들의 무모한 동족상잔으로 인해 백성들은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으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돌보아 주고, 포로들을 조기 귀환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대기의 특수 자료이지만 남북 동포들이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소망한 것이며, 적대관계를 청산할 것을 갈구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② 마지막 분단 시대의 북왕국의 운명(722년, 왕하 17:1-41)

1세기 동안 지속된 친 앓수르 정책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출발했지만, 살만에셀 5세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자 호세아는 주변 소국들과 애굽을 믿고 앓수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앓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 호세아의 반 앓수르 행동은 자살행위와 같았다. 그 후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외

세에 의존하다가 독립을 꾀하게 되고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과 같다. 외세에 안주하느냐 외세를 떠나 독립하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로 귀결된 셈이다.

이렇게 200년 간의 남북 분단 시대는 북왕조가 망하므로(주전 722) 남과 북의 국가적 관계는 끝난 셈이다. 북쪽의 지배층은 앗수르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영토는 앗수르의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거기에 앗수르 사람들이 이주와 살게 되었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피난 와서 살게 되었으므로 마치 남쪽으로 흡수 통합된 것 같은 상황이었다. 지금 남한에 천만의 북한 동포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

4) 남북 분단 시대의 외세(外勢)와 외교정책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전후뿐만 아니라 분단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서남북 사방에 강한 외국 세력들이 있었고, 분단 양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 북쪽에는 앗수르와 아람, 남쪽에는 애굽,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 등이 대표적인 대적들이다. 이 외세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분단 양국의 운명은 좌우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친 앗수르 정책에서 왕권을 유지하다가 반 앗수르 정책으로 선회하자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도 친 바빌론자로 등극하여 친 바빌론 정책에서 반 바빌론 정책으로 선회하자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했다. 외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 것이므로 분단 시대의 외교정책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다.

(1) 분단 50년 간 양국의 외세와 외교정책

다윗-솔로몬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후 북이스라엘은 북쪽 앗수르가 약하기 때문에 앗수르의 큰 위협을 받지 않았다. 한편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으며(917년 왕상 14:25-28; 대하 12:2-12),

유다 3대 아사 왕 때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브엘세바를 거쳐 마레사까지 침공하였다가 아사 왕에 의해 퇴각당했다(대하 14:8-14, 16:8). 이런 외적의 침공이 이어지는 상황에 북왕국 바아사가 남침을 감행하고 라마 성을 축성할 때 아사 왕은 많은 예물을 아람의 벤하닷 1세에게 보내 군원을 요청하자 벤하닷은 북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의 이온과 단과 긴네렛까지 침략하였다. 결국 바아사는 라마에서 철수하고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했다. 유다는 외세를 이용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한 것이다. 따라서 남유다는 외적의 침공을 받아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세를 이용해 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2) 오므리왕조 때의 외세와 외교정책

이 기간에도 남유다는 열세한 편이지만 다행히도 당시 외적들의 침공이 없었다. 한편 오므리왕조는 강한 반면 북쪽의 아람과 3차에 걸쳐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왕상 20:1-34, 22:1-40; 대하 18:1-34). 북왕국의 아합 왕은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을 결퇴시켰다(855년). 다음 아벡 전투에서 아람을 또 격퇴시켰고(854년), 마지막으로 아합 왕은 라못 길르앗 전투(851년)에서 아람군에 의해 전사했다. 이들 전투를 통해 아합 왕은 바아사 때 잃었던 땅도 찾았으나 자신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 큰 위협적인 대적이 나타났으니 앗수르의 남진정책이다. 살만에셀 3세의 비문에 의하면 앗수르를 막기 위하여 아람과 이스라엘과 애굽 등 12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카르카르(Qarqar) 전투에서 앗수르의 남진을 봉쇄하였다(주전 853년). 통상 외교관계에서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가 더 큰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서로 연합군이 되어 친구가 된 것과 같이 아합 왕과 아람이 동맹군이 되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에서는 항상 나라의 이익이 선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적도 되고 친구도 되기 때문

이다.

아합 왕이 죽자 오므리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모압이 봉기를 했다(왕하 3:4-27). 모압의 승리는 성정과 메사비문에 의해 설명된다.

(3) 에후왕조와 앓수르의 남진 정책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후의 유혈혁명으로 새 왕조가 탄생하나 에후는 앓수르 살만에셀 3세에 조공을 바치고 왕권을 보장받았다. 님르드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오므리아들 에후가 앓수르 왕에게 봉신의 예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8세기 중엽부터는 계속해서 앓수르가 팽창하여 가나안과 애굽까지 점령하는 등 대(大) 앓수르제국이 건설된다. 이러한 대 제국의 힘 앞에서 살아남는 길은 큰 힘 앞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었다. 홍수가 날 때는 몸을 피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한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남쪽에서는 에돔이 침공하여 오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침공해 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때 아하스는 앓수르에 군원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다시 남유다는 외세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런 외세의 여파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반 앓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다. 위기에 직면한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 또 애굽의 군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馬)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애굽은 사람이요 신(神)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느니라”(사 31:1-3).

그래서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중심 메시지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결과는 처참한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자주독립 없이 외세에 의존하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곤 했다는 것이다.

(4) 마지막 분단 시대의 외세와 외교정책(왕하 17:1-41)

8세기 중엽 이후 앓수르의 팽창으로 남북의 운명은 열강들 앞에 풍전 등화 같은 격이 되었다. 특히 북쪽 앓수르의 팽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미 북왕국 베가 왕도 반 앓수르 캠페인을 벌이다가 실패함으로 앓수르를 팔레스타인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어 결국 사마리아 북쪽은 전부 앓수르의 점령지가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 속에 북왕국 마지막 왕이 된 호세아는 친 앓수르 정책을 견지해서 왕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호세아는 애굽의 충동을 받아 군원에 확신을 갖고 디글랏 빌레셀 3세(745-722)가 죽자 반 앓수르 정책을 쓰고 앓수르에 반역했다. 그러자 살만에셀 5세(724-722)가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당하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사라졌다.

이런 앓수르의 침공은 남유다에도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황폐와 공포 속에서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앓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다윗 성에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대하 32:3-5). 이는 선임 왕 아하스 때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앓수르의 예속이 된 히스기야로서는 앓수르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과 블레셋 등 주변 국가들이 반 앓수르 동맹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여기에 가담하고 자주독립을 찾고자 했다. 그러자 701년 앓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유다의 46개성이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되었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사수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다(왕하

18:17-19:37; 대하 32:1-23; 사 36-37). 그 후 남유다는 앗수르의 위협과 신 바빌론의 위협 속에 있다가 시드기야의 반 바빌론 정책으로 호세아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분단 시대에 남북 양국은 외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세를 의지하다가 외세에 의해 종말을 맞은 셈이다.

200년 간의 분단 시대를 보면 처음 50년 간은 피차 전쟁을 하면서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시도했으나 외세에 시달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아시는 외세를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으나 외세로 영토를 잃은 결과가 되었다. 그 다음 40년 간의 오므리왕조-여호사밧 시대는 주위 열강들의 그늘 아래서라도 남북 양국은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었고, 외세와 충돌 혹은 협력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 후 에후왕조 100여 년 간은 외세의 위협 때문에 독자적으로 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샤·요아스(8세기 초)의 충돌 외에는 힘을 빌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쟁을 하였으나 뚜렷한 통일 목표나 비전을 제시한 전쟁은 없었다. 동시에 외세에 의존한 결과 분단 양국은 외세의 속주가 되었다가 결국 나라의 종말을 맞았다.

분단 시대를 통해 잠정적으로 국토나 민족 통일을 염두에 둔 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통일 노력에 헌신한 왕이나 예언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일이 국가의 지상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고 회개하면 통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이 끝난 이후의 통일 노력은 실질적인 남북의 국토나 민족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또는 이상적(理想的) 통일 노력들이다.

2. 남북 분단 시대 이후의 이상적 통일 노력과 전망

1) 남유다 멸망 전(주전 586)까지의 유다의 통일 노력

북왕국이 망한 후 이스라엘 땅은 앗수르의 속주가 되고 남유다도 앗수르의 위협 속에 친 앗수르 정책으로만 생존이 가능했다. 더욱이 7세기 후반부터는 앗수르의 팽창과 여기에 대응하는 애굽과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주전 7세기 말이 되면서 앗수르 세력이 약화되고 바빌론 세력이 등장하기 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자주 독립 국가를 추구하면서 야웨 종교의 정화를 시도했다. 이 종교개혁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북쪽 사람을 흡수하여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였다.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있는 산당까지 허물면서 야웨 신앙으로 결속되기를 희망했다(대하 31:1). 당시 이스라엘의 국토는 앗수르의 속주로 있기 때문에 국토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종교적·신앙적·민족적 통일을 염원한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도 유다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대하 29:24), 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유다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였다(대하 30:1-27).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에브라임, 므낫세, 잇사갈과 스블론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대하 30:18).

요시아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앗수르의 힘의 공백을 포착하여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유다지역은 물론 북쪽의 벤엘과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과 제단까지 헐면서 신앙정화운동을 시도하였다(대하 23:15-20). 동시에 므깃도에서 바로 그와 싸우면서 잃은 북쪽의 국토를 회복하려던 그의 민족과 국토 통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전사함으로써 통일의 꿈은 사라졌다.

2) 바빌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통일 노력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함으로 많은 지배층 사람들이 바빌

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다. 가난한 백성들은 유다 땅에 남았지만 바벨론 지배 아래서는 백성들을 결속시켜 줄 국가나 영토나 종교 의식이 없고 단지 신앙적 이상적 통일 운동이 가능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포로 중에 있던 선지자 에스겔은 남북의 이상적 통일의 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겔 37:15-22).

이러한 에스겔의 통일 비전은 포로의 신세라 할지라도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었다.

민족 통일의 이상은 역대기에서도 지속된다. 역대기 사가는 다윗 왕국 시대에도 ‘온 이스라엘’이란 표현을 쓸 뿐 아니라 포로 후 민족 공동체에도 ‘온 이스라엘’이란 표현을 써서 통일의 꿈을 부각시키고 있다. 역대기 사가가 처음부터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재통일을 희망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분단 후에도 역대기 사가는 북 이스라엘은 물론 남 유다도 ‘이스라엘’ 또는 ‘온 이스라엘’로 부른다. 이는 유다가 모름지기 참 이스라엘이요 다윗왕국의 대표자란 의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골라(귀환자)들은 이방의 고통을 감수하고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

토에 남아 있던 자들 중에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속과 우상숭배한 족속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격리를 주장했다.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 문제로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역대기 사가는 그들을 형제로 부르고 이방인으로 배척하지 않았다(대상 12:39, 13:2; 대하 28:8, 11, 15). 이는 집권자들에 의해 나라가 양분되었지만 백성들은 민족 동일성 의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역대기 사가는 보여 준다.

따라서 역대기의 통일 신학은 여호와 신앙에 굳게 서서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가 이룬 다윗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역대기서는 여호와와의 신앙으로 주권 회복과 민족 통일을 이룬다는 이상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III.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성서적 교훈

앞에서 언급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성서적 교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 역사에 대한 우리의 참회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가는 분단과 분단에서 파생된 비극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분단과 분단 고착에 대한 죄 된 고백을 함으로만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분단에 대한 인식과 죄책 고백

우리는 종종 ‘분단은 악이고 통일은 선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과연 성서적인가라는 것이다. 분단이 악이고 통일이 선이라면 왜 이스라엘 분단 역사 속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왕도 없

고, 통일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상과제나 미래의 희망으로 선포한 예언자도 없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 통일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신명기 사가나 역대기 사가는 공히 분단으로 당하는 고통과 비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북왕국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 것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왕상 13:33-34). 이는 그도 범죄했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였기 때문이다(왕상 14:15-16). 또 남유다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은 것도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기 때문이다(왕상 14:22-23). 그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거의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과 비극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우리의 분단은 이스라엘의 분단과 시공의 차이도 있고 그 경우도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主)로서 해방부터 분단 고착까지의 역사에 간섭하셨다고 할 때, KNCC의 성명처럼 분단을 전적으로 구조적 죄악으로만 속단할 수 없다. 우리의 분단 62년을 광야의 훈련기로 또는 우리 민족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1991년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으로 또는 우리 민족에게 지워진 십자가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분단과 그로 인한 고통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고, 우리도 같은 우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 요청된다. 분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단의 방관자요 분단 고착을 막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 해석에 의한다면 분단의 주역인 미·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6·25같은 민족상잔의 비극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문제는 이런 역사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인되어야 살아 있는 역사 의식이 된다.

2. 통일을 향한 화해-용서와 신뢰 회복

지금까지 남북한의 문제는 상호 불신과 적개심을 갖고 군사적 우위의 대결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쌍방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민족의 과제이다. 적개심이란 상호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집권자들은 민족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하여 적개심을 북돋웠다. 끝없는 군사적 대결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피차 멸망을 촉진케 된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차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요청된다. 잘못된 자가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사과없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형들을 위로했다(창 45:7-8, 50:20).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은 용서의 절정이 예수의 십자가 상의 모습이다. 인류 사랑의 힘이 용서로 나타난 것이다.

또 북왕국 예언자 오렛의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는 승리자의 의로움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긴 쪽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승전가를 부르고 포로를 데리고 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 없느냐? 너희의 허물이 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했다”(대하 28:10-13)는 말에 유다의 포로들을 귀환시킨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관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화해와 평화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피차 상대를 형제(아호)로 부르고 있다(왕상 12:24). 이는 체제상, 국토상 서로 분단된 분단 상

황 속에서도 상대를 적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아호’란 말은 한 조상의 같은 혈육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형제란 뜻에는 형제에 대한 강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갖는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한다. 성경에 기업 무를 자로 번역되는 용어이다. 이 의무에는 형이 죽었을 경우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잇는 일, 친척 중에 가난하여 중이 된 경우 몸 값을 주고 친척을 구해오는 일, 친척의 유산받은 밭이 팔렸을 경우 되사오는 일, 친척 중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 원수 갚는 일 등이 형제의 할 일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형제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고려한다면, 북한 동포를 이러한 연대감 속에서 형제로 대하고 형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세는 잠깐이지만 우리 남북의 형제들은 한반도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3. 통일의 소망과 비전

누가 통일을 고대하는가? 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것이다. 통일은 분단 당사자 모두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배자들은 기존 체제를 전제한 통일을 바라고 백성들은 기존 체제보다 좋은 통일을 소망하는 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적화통일을, 남한은 북진통일을 내세웠지만 이 둘은 집권자들의 욕망일 뿐 성취되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유다 왕 르호보암이 북진통일을 위해 18만 명을 모집했으나 수포로 끝난 것과 같다(왕상 12:21-24; 대하 11:1-4).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한(주전 722) 후에 남왕국의 히스기야(주전 716-687) 왕과 요시아(주전 640-609) 왕이 잠시 남북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 히스기야 왕은 북쪽 사람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

로 먼저 지역 정치의 통일에 앞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방제단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회복하고(대하 29:5-18), 북쪽 지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권고하고(대하 30:10-12), 유다 전역에 아세라 신당을 파괴하는(대하 31:1) 등 종교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요시아 왕도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곧 므릿도에서 전사함으로 실질적인 통일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력도 주변 강대국들의 재등장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원만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분단 중에는 어떤 실질적 통일도 없었고, 남북 모두가 외세에 의해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했다. 포로로 끌려가 절망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에서 본대로 에스겔은 회망에 찬 상징적 통일 예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에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겔 37:22).

위의 메시지는 포로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이 통일을 이루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 벽찬 내용이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꿈과 환상이 그때까지 그들을 존재케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지역적으로 유대인과 사마이라인들 사이에는 극한 갈등이 있었고(집회서 50:25-26; 요 4:9) 유다 내에서도 남아 있던 자들과 포로로 왔던 자들 간에 깊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다의 신앙 공동체는 지역간, 계층간의 담을 헐기 위해서 먼저 민족 통일을 추구했으나 지

역적, 민족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신학으로 주어진 것이 회년법이라고 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과 국내외에는 분단의 상황 하에서 부자유와 억압 속에 삶의 터전을 되찾지 못하고 사는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 회년 정신이란 이런 자들에게 희망에 찬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주어졌던 해방과 자유의 통일 조국을 되찾는 기쁨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단 62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시련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기간은 심판과 구원(호 2:14-15)의 훈련기였다. 이후로는 우리 민족에게서 광야의 십자가 고통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 입주의 기쁨과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광야 시기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 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절대 의존할 때만이 생존이 보장된다는 신앙을 일깨울 때이다. 나라의 안전이 외세나 무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이요 평화라는 말이다.

4. 평화 공존의 터전 마련-통일의 길

지금 북한은 조국통일을 외치고 있다. 이는 적화통일의 연장선에 서 있는 통일 방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목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변치 않는 이데올로기 민족해방운동이다. 전 북한 주민이 이런 목표로 도전해 오는데 우리는 어떤 통일 목표와 방안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북진통일에서 승공통일로, 승공통일에서 흡수통일 또는 평화통일로 용어가 변천되었지만 국민적 통일 목표가 분명치 않다. 왜 통일이 지상과제인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부족하다. 단 남쪽이 힘의 우위로서 선점을 했다는 방식은 속단키 어렵다. 역사의 주(主)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증거가 없다. 문제는 하나

님 보시기에 북한의 백성들보다 남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옳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남북이 모두 사는 평화 공존의 논리, 즉 평화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공존의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비와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②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평화롭게 하신다’ (엡 2:14-15).

③ 산상수훈대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 5:5).

④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세운다.

⑤ 이사야가 제시한 이리와 어린양이 같이 어울리며……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평화의 동산을 추구한다(사 11:6-8).

⑥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따라 진행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다.

⑦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겨레 한 민족인 동족 의식을 회복한다.

⑧ 참된 평화통일이란 사랑, 진실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⑨ 인간의 잔인성과 공격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온유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포로, 즉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맺는 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분단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배교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분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단의 직접적 책임자는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한 왕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스마야 같은 예언자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강한 외적들이 침략하고 도전하여 오기 때문에 남북은 자기의 상대를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분단 당사자들이 할 일은 분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백성 모두가 서로 적개심을 버리고 형제애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예언자 오벳의 사건에서처럼 승리자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적대자를 용서해야 한다. 한 조상의 후손인 남북의 형제들은 피차 연대감과 책임감을 갖고 형제애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민족 공동운명체임을 더욱 자각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평화 공존의 논리에 따라 정의와 사랑이 깃들인 평화의 통일 동산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통일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가 주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역사공리(Historiosophy)로 삼는다.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미국 침례교회의 보수 신앙가였던 카터(Carter)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976년을 소위 복음주의자들의 해(Year of the Evangelical)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미국 교회 안에서 거듭난 신자로 자처하는 무리들은 새삼스럽게 세인의

■ 홍치모 장로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 영국 그사스코 성서대학 졸업
-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성경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역사가들은 미국에 있어서 복음주의 운동의 부활 혹은 재기(再起)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각기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교회사가들과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 운동에 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여 논문과 저서로 계속 발표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어간에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한 많은 논문과 저서 가운데 〈Christianity Today〉는 1992년에 3권의 저서를 선정하여 저술상을 수여하였다.¹⁾

그런데 우리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소위 보수진영에 속한 학자들만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과 신학자들도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비록 근본주의 신학사상이나 복음주의 신학사상과 생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선입견을 버리고 근본주의 운동을 연구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대학의 교회사 교수로 있던 마틴 마티(Martin E. Marty) 교수가 “미국 신학의 흐름을 논하면서 근본주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자연경관을 살피면서 록키산맥을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1) Michael S. Horton, *Made in America : the Shaping of Modern Evangelicalism*(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Donal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eds.,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 (Downers Grove, IL : IVF Press, 1991).
Hary S. Stout, *The Divine Dramatist :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Modern Evangelicalism*(Grand Rapids : Eerdmans, 1991).
〈Christianity Today〉(April 6, 1992), pp. 41-43.

말이라고 할 수 있다.²⁾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근본주의(根本主義) 운동과 신학사상 그리고 신복음주의 운동과 신학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역시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있는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교회사가 더글라스 스위니(Douglas A. Sweeney)는 소위 진취적 복음주의 역사가들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신복음주의 역사서술 : the New Evangelical historiography〉이라고 제목을 붙여 그들의 연구 업적을 소개한 바 있거니와,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역사가들 중에는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 마크 놀(Mark Noll), 조엘 카펜터(Joel Carpenter), 그랜트 워커(Grant Wacker) 등이 포함되어 있다.³⁾

이들의 미국 교회사 연구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이정표(里程碑)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룩한 연구 업적에 대해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성결(Holiness)과 진영에 속해있는 복음주의 역사가들 중에서 데이턴(D. W. Dayton), 스미스(T. L. Smith), 콜린(K. J. Collins) 등은 「신복음주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미국의 복음주의를 방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⁴⁾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을 칼빈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과 웨슬레적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의 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상의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보수적이며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근본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에 관해서 역사 서술을 고집하고 있는 역사가들도 없지 않다. 이들은 최근 미국에서 일부 역사가들이

2) Martin E. Marty, *A Notion of Behaves*(Chicago University Press, 1976), p. 80.

3) Douglas A. Sweeney, “the Essential Evangelical Dialectic : the Historiography of the Early Evangelical Movement and the Observer - participant Dilemma” *Church History* 60(Spring, 1991). Sweeney 교수는 복음주의 역사가들 중에서 개혁진영에 속하는 역사가들과 성결교회(Holiness Church)진영에 속하는 역사가들을 구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4) D. A. Sweeney, *Church History* 60(Spring, 1991).

자기성찰적 내지 자기비판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이 분야의 연구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II

1970년 이후 근본주의에 대한 해석은 세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신학적이고 둘째는 제도적(기관) 혹은 전기적(傳記的)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이다.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보수적 교단 안에서 현대주의자들이 주었던 충격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30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 회고해 볼 때,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사상에 관해서 최초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한 학자는 에른스트 센텐(Ernest Sandeen) 교수이었다.⁵⁾ 센텐 교수의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근본주의 운동을 서술할 때 미국 남부 농업지대의 산물이고 동시에 반지성적(反知性的)인 운동의 결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센텐 교수는 문화적 배경을 뛰어 넘어서 신학적(神學的)으로 해석하였다. 즉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 운동은 당시 프린스턴신학교가 표방하고 있던 성경무오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사상(dispensational

5) Ernest Sandeen, *The Roots of Fundamentalism : British and American Millenarianism, 1800-1930*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ational Premillennialism)의 연합으로 나타난 운동으로 이해하였다. 센텐 교수는 주장하기를 미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은 프린스턴의 신학자 워필드(B. B. Warfield) 교수와 하지(A. A. Hodge) 교수가 1881년 〈*Presbyterian Review*〉에 〈영감 : *Inspiration*〉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 내용과 연결시킴으로서 한층 더 강화된 사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⁶⁾

센텐 교수의 저서는 그 후에 간행된 저서들의 내용을 지지하거나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⁷⁾ 예를 들면 테오도르 보즈먼(Theodore J. Bozeman)이 저술한 「과학시대의 개혁교도들(科學時代의 改革教徒들)(*Protestant in an Age of Science*)」라든가 야콥 로저스(Jacob Rogers)와 도널드 맥킴(Donald Mckim)의 공저인 「권위와 성경의 해석(*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등이다.⁸⁾

센텐 교수의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 그의 저서에 대해서 학계의 반응은 적지 않았다. 사망으로부터 찬반의 논의가 야기되었다. 그 중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근본주의자들은 모두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었던가라는 문제였다. 이 문

6) H. R.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meminationlism*(New York, 1929).

Stewart Cole, *The History of Fundamentalism*(New York, 1931).

7) 센텐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 교수와 로리 무어(Leory Moore Jr.) 교수는 주장하기를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스덴 교수는 센텐 교수의 주장에 참가하여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과 영국에서 시작한 케직사경회와 신학사상을 첨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Christian Scholars Review I*(Winter, 1971), pp. 141-151. 참조

한편 무어 교수는 지적하기를 현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만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ory Moor Jr., "Another Look at Fundamentalism : A Response to Ernest B. Sandeen" *Church History* 37(June, 1968), pp. 195-202.

8) Theodore J. Bozeman, *Protestants in an Age of Science : The Baconian Ideal and Ante-Bel-lum Religious Thought*(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7).

Jack Rogers and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An Historical Approach*(San Francisco : Harper and Row, 1979)

제에 대해 당시의 학계에 있어서 여론은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들을 가리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歷史的 前千年主義者)」들이라고 불렀다.

둘째, 1881년에 〈Presbyterian Review〉에 발표한 성경 무오설은 당시 돌연히 만들어 낸 학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현재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신학교의 교회사 교수 존 우드브리지(John D. Woodbridge) 교수와 그의 제자인 미국의 랜달 발머(Randall Balmer) 교수는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워필드나 하지 교수가 성경 원전에 입각하여 ‘성경 무오설’ 교리를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1881년 이전부터 프린스턴신학교 안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던 교리라고 하였다.⁹⁾

센텐 교수 다음으로 주목을 끌었던 인물과 저서를 지적할 것 같으면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Denver) 시에 있는 덴버신학교 교수 티모시 웨버(Timothy Weber)의 논문이다. 웨버 교수는 자신이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을 1983년 「재림의 그늘 밑에서의 삶(Living in the shadow of the Second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¹⁰⁾

웨버 교수 저서의 핵심은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발생하고 있던 무렵 소위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을 조심성 있게 분석했다. 웨버는 스승인 마틴 마티(Martin Marty) 교수의 행동모형적(行動模型的) 연구 방법을 인용하여 전천년사상이 어떻게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행동(behavior)과 생활양식(Lifestyle)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하였다.¹¹⁾

한편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현재 학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

는 역사가는 조지 마스덴 교수이다. 마스덴 교수의 부친(작고)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세운 메이첸 교수의 직계 제자로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사무처장으로 봉직하였다. 마스덴 교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미국 장로교회 안의 Old School과 New School에 관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스덴은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집결되어 출현한 소위 New School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그들의 이상(理想)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연구 내용의 중심을 보면, New School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교리적 내지 사상적 배경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마스덴 교수는 지적하기를 New School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을 비롯하여 부흥운동가들, 교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던 독립적 선교단체 운영자들, 그리고 도덕적 법칙을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던 도덕가들이었다. 그런데 1837년 Old School과 New School이 분열했던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부적 성격은 거의 양쪽 모두가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다.¹²⁾

근본주의 신학이 어떻다고 언급할 때 주목을 끄는 것은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의 해석이다. 현재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은 북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하고 있는 밥 존스(Bob Jones) 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에는 두 사람의 교수가 있는데, 조지 달러(George Dollar)와 데이비드 빌(David O. Beale)이다. 이 두 교수는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 근본주의 신앙과 신학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투쟁적 전사들이다.¹³⁾

9) Randall Balmer and John D. Woodbridge, "The Princetonians Viewpoint of Biblical Authority : An Evaluation of the Ernest Sandeen proposal" in *Scripture and Truth*, ed.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Grand Rapid : Zondervan, 1983), pp. 251-286.

10) Timothy Weber, *Living in the Shadow of the Second Coming : American premillennialism, 1875-1925*(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 251-286.

11) Martin Marty, *A Nation of Behaviors*(Chicago University Press, 1976).

12) George Marsden, "The New School Heritage and Presbyterian Fundamentalism"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2(1970), pp. 129-147.

13) George Dollar, *A history of Fundamentalism in America*(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73).

David O. Beale, *In Pursuit of Parity : American Fundamentalism Since 1850*(Greenville, Unusual publications, 1986) 이 두 교수의 견해 차이는 음성의 높고 낮은 정도의 차이뿐이다.

이 두 교수가 표방하고 있는 특징은 성경을 에누리 없이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는 데 있다. 만약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비난의 공격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본주의 신학과 역사에 관한 연구는 최근 30년 동안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근본주의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전기(傳記)를 비롯하여 한 교단(교파)의 역사적 혹은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와 서술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텐 교수의 제자인 브래들리 롱필드(Bradly J. Longfield)는 1991년 「장로교인의 논쟁(長老敎人의 論爭) : 근본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간행하였다. 롱필드는 이 책에서 장로교회에서 야기된 신학 논쟁의 시야를 넓혀서 사회적, 문화적 배경 하에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Scottish Common Sense of Realism)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¹⁴⁾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1880년부터 194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초교파적으로 많은 성경학교(대학 수준)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버지니아 리슨 브레러턴(Virginia Lieson Brereton)은 각 성경학교의 신학적 배경과 설립 목적을 소위 제도사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¹⁵⁾

제도사적 연구와 서술 외에 전기적 연구도 근본주의 운동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기적 연구는 근본주의 운동을 선도하였던 지도적 인물 중에서 선택하여 그들의 개성과 신앙적 인격적 내면세계를 고찰함으로써 근본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과

14)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 Fundamentalist, Modernist and Moderat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5) Virginia Brereton, *Training God's Army : The American Bible School, 1880-1940*(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거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였던 앨런 러셀(C. Allyn Russell)은 1976년 당시까지 개별적으로 서술한 것들을 집약하여 「미국 근본주의의 여러 주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간행하였다.¹⁶⁾ 이 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20년에서 1930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근본주의 운동의 여러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 이외에도 개인별로 연구한 연구서도 간행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무디(D. L. Moody), 빌리 선데이(Billy Sunday), 그레섬 메첸(J. Gresham Machen), 아르노 가벨레인(Arno C. Gabelein), 윌리엄 벨 라일리(William Bell Riley), 어거스터스 스트롱(Augustus H. Strong) 등의 전기적 연구서가 간행되었다.¹⁷⁾

한편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정의(定義)를 내리는 작업도 활발하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센텐 교수가 시도한 바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마스텐 교수는 「근본주의와 미국문화」라는 제목으로 1981년에 저서를 간행하였다.

마스텐 교수도 센텐 교수와 같이 근본주의 운동을 하나의 종교운동(宗教運動)으로 이해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근본주의 운동을 정의할 때 센텐 교수가 시도했던 좁은 신학적 정의를 벗어나서 미국 사회의 정치적·문화적·지성적(知性的) 활동의 현상으로 간주하여 분석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근본주의 운동을 현대주의를 반대하는 전투적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이라고

16) C. Allyn Russell, *Voices of American Fundamentalism*(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17) Lyle Dorsett, *Billy Sunday and the Redemption of Urban America*(Grand Rapids : Eerdmans, 1991).

James F. Findlay, *Dwight L. Moody : American Evangelist, 1837-1899*(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Darryl G. Hart, *Doctor Fundamentalist :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J. Gresham Machen, 1881-1937*, Ph. D. Dissertation(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정의를 내린 바 있다.¹⁸⁾

마스텐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메첸 교수라든가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William Jennings Bryan) 같은 사람도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현대주의(現代主義)에 대해서는 전투적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 근본주의 운동에 관한 마스텐 교수의 공헌을 지적할 것 같으면, 현대주의자들이 냉소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을 비과학적 인간들 아니면 과학(科學)을 기피하는 무리들이라고 낙인을 찍어왔는데 반해서 마스텐 교수는 주장하기를 실제에 있어서 반과학적이었거나 반지성적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데 있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의 귀납법(歸納法)적 사고와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을 이용하여 그들의 교리를 변호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였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교리들을 단지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으로 믿고 있을 뿐, 역사적으로 파수하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이거나 철학적 논리를 통해서 변호하여 왔다는 사실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역사가는 마스텐 교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III

18) George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 The Shaping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sm, 1880-1925*(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마스텐 교수의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견해는 그의 저서 제6장과 제13장을 참조할 것.

19) Ibid.

마스텐 교수의 근본주의 운동 연구를 발판으로 삼고 많은 역사가들은 한 단계 뛰어 넘어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 운동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신복음주의 운동은 1937년 메첸 교수가 사망한 후 극소수의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옥켄거(Ockenberger) 목사였다. 그는 본래 회중교회 출신으로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입학하여 메첸 교수 밑에서 배웠다. 옥켄거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자 한 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메카트니(Macartny)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피츠버그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였다.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동안 피츠버그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옥켄거 목사는 자신이 근본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근본주의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편협성과 지나친 배타성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근본주의 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큰 교단에서 이미 시작된 좌경화 현상을 저지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 구상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을 총망라하여 개인적으로 총 규합시킴으로써 초교파적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시키기로 하였다.

옥켄거 목사의 꿈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만약 각 교단 안에 있는 지도급 보수주의자들을 불러 내어 복음주의적 연합단체를 결성하기만 할 것 같으면 현대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종전까지 불었던 좋지 않은 '딱지'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주의자들과도 가능한 한 교제하면서 상호간의 대화도 시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0년 옥켄거 목사가 중심이 되어 미국 복음주의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조직하였다. 그러므로 신복음주의 운동이 표면화된 것은 194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조엘 카펜터(Joel Carpenter) 교수는 1930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겪고 있던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여 존 홉킨스(John Hopkins)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역사서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미국 근본주의 운동 갱신 : 1930-1945〉이었다.²⁰⁾

복음주의 연합체가 결성되어 7년을 맞이하던 1947년 미국 LA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사데나(Pasadena) 시에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되었다. 마스덴 교수도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의 신복음주의 운동은 풀러신학교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²¹⁾

마스덴 교수에 의하면 소위 신복음주의 운동은 풀러신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풀러신학교가 창건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학교 창건 당시의 교수들의 신앙과 신학과는 달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되 성경의 무오성(Inerrancy)을 믿지 않은 교수들을 영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교수들과 믿지 않는 교수들 사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곤 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의 대립과 갈등은 1962년에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사건은 토요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암흑의 토요일 : Black Saturday’ 이라고 부르고 있다.²²⁾ 이때부터 풀러신학교는 교수들에게 성경의 무오성을

20) Joel Carpenter, *The Renewal of American Fundamentalism*(John Hopkins University, 1984).

21) George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Grand Rapids, 1987).

필자가 1983년 칼빈대학교를 방문하여 Marsden 교수의 연구실을 노크했을 때, 마스덴 교수는 말하기를 자기는 곧 풀러신학교의 초청을 받아 1년간 그 곳에 체류하면서 풀러신학교의 역사를 집필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22) op. cit., pp. 208-215.

강요하는 ‘서명’을 폐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풀러신학교는 ‘개방된 복음주의 : Open Evangelicalism’ 신학교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근본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신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개방된 신학정신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었다. 신복음주의 신학운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저서로는 마크 놀(Mark Noll) 교수의 저서 「신앙과 비평주의 사이 : *Between Faith and Criticism*」가 있다.²³⁾

마크 놀 교수의 저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최근의 복음주의 신학사상을 총망라하여 소개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마크 놀 교수의 저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저서가 데이비드 웰(David Well)과 존 우드브리지(John Woodbridge), 그리고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 교수에 의해서 간행되었다.²⁴⁾

한 마디로 말하면, 풀러신학교 초기에 있어서 신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는 많지 않았다. 수년 전에 작고한 헨리(C. F. H. Henry) 교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의 고백 : *Confessions of a Theologian*」은 랜돌프 넬슨 교수가 풀러신학교의 설립과 〈*Christianity Today*〉지를 간행하던 무렵 헨리 교수의 내면세계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저서이다.

한편 랜돌프 넬슨(Randolf Nelson) 교수는 칼 헨리(Carl Henry) 교수와 카넬(J. Carnell) 교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를 간행하였다. 이 저서에서 넬슨 교수는 카넬 교수의 죽음을 자살한 것으로 의심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가 사망하기 전 신경쇠약에 걸려 수차 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살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역

23) Mark Noll, *Between Faith and Criticism : Evangelicals, Scholarships and the Bible*(San Francisco, 1986).

24) David Well and John Woodbridge, *The Evangelicals : who they are, what they believe, where they are changing*(Nashville, Arlington, 1975).

사서술상 객관성을 벗어난 주관적인 추측으로 볼 수밖에 없다.²⁵⁾

IV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주로 개혁교회 진영(Reformed Camp)에 속해 있는 역사가들의 연구에 관해서이었거니와 개혁교회 진영이 아닌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까지를 포함시켜서 소위 성결교회 진영(Holiness Camp)에 속해 있는 역사가들도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운동을 조명함으로서 그들 나름대로 교회적 내지 교리적(신학적) 특성을 지적하며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성결 진영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공헌한 업적들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 북침례교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도널드 데이튼(Donald W. Dayton)과 로버트 존스톤(Robert K. Johnston)은 1991년 「미국 복음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저서를 간행하였다.²⁶⁾

이 저서는 알미니안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다양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 각자가 속해 있는 교단과의 역사적인 유기적 연관성을 규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데이튼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미국의 종교적(교회적) 풍경은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복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하였다. 각 개체교회나 교파의 집합체로서 지니고 있는 미국의 종교적 보수주의적 경향 내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연합운동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 개체교회들이 밀집되어 하나

25) Randolph Nelson,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Evangelical Mind : The case of Edward Carnell*(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6) 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Knoxville :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1).

의 큰 덩어리 모양으로서 미국 교회의 종교적 보수주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데이튼 교수의 가설(hypothesis)로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성경 무오설이 근본주의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웨슬레파와 성결교회파 심지어 루터파(Missouri Synod)와의 상호 연결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도 연구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폴 바셋(Paul M. Basset)은 미국의 나사렛교회(the Church of Nazarene)가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무오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데이비드 라이펠드(David R. Liefeld)와 밀턴 루드닉(Milton Rudnick)은 강조하기를 루터파와 근본주의 운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²⁷⁾

끝으로 센텐 교수와 마스텐 교수가 제기했던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과 근본주의 운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랜달 발머(Randal Balmer)와 대릴 하트(Darryl G. Hart)는 각각 언급하기를, 전자는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은 19세기에 와서 새삼스럽게 급조된 성경관이 아니라 종교 개혁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개혁교회의 교리를 재창조한 것 뿐이라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Common Sense Realism)은 근본주의 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그 철학이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사고와 신학에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²⁸⁾

27) Ibid., pp. 245-251.

28) Randal Balmer, "The Princetonians and Scripture : A Reconsider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Fall, 1982), pp. 352-365. 발머(Balmer) 교수는 위의 논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논문을 "The Princetonians, Scripture and Recent Scholarship"이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60)(Fall, 1982), pp. 267-270에 동시에 게재하였다.

Darryl G. Hart, "The Princeton Mind in the Modern world and the Common Sense of J Gresham Mache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6(1984), pp. 1-25.

Darryl G. Hart, "A Reconsideration of Biblical Inerrancy and the Princeton Theology's Alliance with Fundamentalism", *Christian Scholars Review*, 20(March, 1991), pp. 362-375.

Mark Noll, *The Princeton Theology, 1821-1921 : Scripture, and Theological Method from Archibald Alexander to Benjamin Warfield*(Grand Rapids : Eerdmans, 1983).

맺는말

지금까지 최근 30년 간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 연구에 관한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운동에 관한 연구는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간행된 저서 중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학사(史學史) 내지 연구사(研究史)적 고찰을 기술한 저서로는 레오너드 스윗(Leonard I. Sweet) 교수가 쓴 저서 *The Evangelical Tradition in America*(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4)가 있다. 그 저서 첫 머리, 즉 제 1쪽에서 86쪽까지 스윗 교수는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의 연구의 발자취를 기술하였다.

스윗 교수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미국 복음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문헌을 소개한 저서들을 간행하였다.²⁹⁾

현재 미국에 있어서 복음주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은 휘턴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명칭은 'Institute for the Study of American Evangelicals' (ISAE)이다. 이 기관을 'Evangelicalism in Twentieth Century America : A Guide to the Sources' 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기관은 또한 빌리 그레이엄센터(Billy Graham Center Archives)와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공급하고 있다. 미국에는 많은 신학교와 선교기관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들 기관들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도서관이나

자료 보관실에 쌓여 있다. 그것들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태반이다. 따라서 미공개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공개될 때,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풍부한 연구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29) Edith Blumhofer and Joel A. Carpenter, *Evangelic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 A Guide to the Sources*(New York : Garland Publishing, 1990).
Robert D. Shuster, et al., *Researching Modern Evangelicalism : A Guide to the Holdings of the Billy Graham Center Archives with Information on other collections*(Westport, CT : Greenwood Press, 1990).
Norris Magnuson and William G. Travis, ed., *American Evangelicalism : An Annotated Bibliography*(West Cornwall, CT : Locus Hill Press, 1990).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

- 기독교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를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1. 서론

1. 문제제기

고트홀트 뮐러(Gotthold Müller)가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라는 자신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기독교 교리학에는 기도신학

■ 최석환 목사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Ph. D. cand)
- 육군 제15사단 승리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도에 대한 별도의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¹⁾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제만을 다룬 출간물로는, 메네고즈(Ménégos)의 중요한 저서 『Problème』 외에는 단지 짝막한 논문만 있을 뿐이다.²⁾ 이는 기도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기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를 위한 최상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기도는 외견상 완전히 고사한 것 같다”;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음이 자주 폭 넓게 유포되어 있다” 등이다.³⁾

그러나 우리는 칼빈을 통하여 확고한 기도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 존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칼빈의 명성을 떨치게 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방대한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실로 기도의 열매였다. 하지만 칼빈의 신학적인 저작들은 그토록 높

1)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84-94. Gotthold Müller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기독교적 기도의 교리학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루터(M. Luther)와 칼빈(J. Calvin)(Inst. III, 20.1559)의 신학에서는 기도가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츠빙글리(U. Zwingli)는 많은 경우 기도의 오용에 대하여 논쟁을 전개하였다(CR 90, 851 이하). 멜란히톤(Ph. Melancthon)은 자신의 *Loci communes*의 2판에서야 비로소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CR 21, 536-542), 제 3판에서 *De invocatione Dei seu de precatione*라는 표제의 장을 약간 수정하여 첨가하였다(CR 21, 955-984). 이미 그의 저서에서 루터신학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중심 기능을 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멜란히톤은 비교적 우연한 위치에서, 즉 자신의 체계 끝 부분인 제29장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다. 루터의 믿음과 신학을 “믿음이란 ‘오직 기도’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WA 8, 360, 29)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최소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인식이 특히 교리학의 형성에 효과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스키미드(H. Schmid)의 *Die Dogmatik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hg. V. H. G. Pöhlmann, Gütersloh 1979)와 같은 교리학의 표준서에는 기도에 관한 절이 없으며, 헤퍼와 바이저(H. Hepp/E. Bizer)의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Neukirchen, 1958)의 색인에는 색인이 기도가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교리학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는 고트홀트 뮐러(Gotthold Müller)의 주장에 필자는 동감한다. “기도는 교리학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학은 기도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기도는 교리학 내에 속하는 어떤 구체적인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교리학의 모든 명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도라는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Ebld. S.85. 메네고즈(Ménégos)는 모든 신학, 교리학 및 종교 철학은 이들이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고 설교했다(Problème 530).

3) Ebld.

이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칼빈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필자는 서론에서 기도의 정의를 내릴 것이다. 본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기도의 역사적 배경,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기도신학, 칼빈의 소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의 실제, 1542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칼빈의 예배 모범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독일개혁신교회의 예전서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필자의 기도의 실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신학을 정립하며, 기도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 기도 모범서를 소개할 것이다.

3. 기도의 정의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⁴⁾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기본 구조는 기독교적 기도의 특성이며, 기독교적인 모

4)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86, 88.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는 예배 구절은 모든 기독교적 기도의 진정한 원천이고 또 고유한 근원이다. 예전과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을 단지 여러 방식으로 전개할 뿐이다. 예전은 예배에 따라 기도되어지는 교리이며 교리는 예전의 체계적 사고 이행이다. 고트홀트 뮐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구원의 경제적인(heilsökonomischen) 삼위일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셋이며 하나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며 기억(Anamnese), 설교(Prädikation), 간구(Epiklese) 속에서 완료된 것, 현재인 것 그리고 미래인 것을 전개시키는 것이다(Ebd. 88).

든 기도에 관한 학설과 그 실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다.⁵⁾ 기도는 신학의 심장(das Herz der Theologie)이다. 기도는 믿음의 시금석이며 기도신학은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다.⁶⁾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⁷⁾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한다고 말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요컨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상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궁핍함을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돌보시려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불행도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함으로 마음이 폭 놓이기 때문이다”⁸⁾

II. 기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기도의 역사적 배경

정일웅 교수는 그의 책 「기독교 예배학 개론」에서 예배와 기도라는 독립된 장을 만들어서 기도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⁹⁾ 초대교회, 중

5) E.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llsorge*(München, 1948), S.168.

6)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86.

7) Ebd. S.87.

8)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서울: 풍만, 1985), p.12; John Calvin, 「한·영 기독교 강요 제3권」, 편집부 역(서울: 성문, 1990), III, Ch.20. 2, pp. 637.

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 순으로 기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1) 초대교회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습관은 벌써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서 발견된다. 이는 이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에서 쉽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단 6:11). 이러한 관습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던 40일간의 금식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 주셨다(마 6:9-13). 그리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으며, 그의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상의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유대교의 기도생활은 초대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있었다.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하루에 3시, 6시, 9시로 정하여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행 2:15, 10:9, 3:1).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간청과 권고는 지금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된다. 예배와 관련하여 기도하는 일은 사도 시대 이후 초기 교회의 예전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디다케의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하루에 세 번씩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세기경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시편 119편 6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7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아 7번 기도하는 일을 행했다.¹⁰⁾

9)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서울 : 이레서원, 2000), pp. 291-296.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hung, Il-Ung, *Die Theologisch und Didaktische Bedeutung des Evangelischen Erwachsenenkatechismus für die kirchliche Erwachsenen Idung in Korea*(Bonn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 Universität zu Bonn, 1984).

10) 일곱 번의 기도는 다음과 같다: 새벽 3시(Matutin), 6시(Prim), 9시(Terz), 12시(Sext), 15시(Non), 18시(Vesper), 21시(Complet) 등이다. 이러한 기도를 서구 교회는 호렌(Horen)이라고 부른다. Ibid., p. 294.

2) 중세시대

중세 로마 교회로 와서는 매일 하는 여러 차례의 기도를 돕기 위해 브레비아리움(Breviarium)이란 책을 만들게 되었다.¹¹⁾ 이 책은 1568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 근거하여 전 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성직자들과 사제들의 매일의 기도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서의 사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메커니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훈련은 누시아(Nusia)의 베네딕트(Benedict) 수도원의 기도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종교개혁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는 그의 글 “Von Ordnung Gottesdienste in der Gemeinde” (1523)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브레비어(Brevier)에 의존된 기도를 반대하고, 그 가운데서 아침 기도(Mette, Matutin-새벽 3시)와 저녁기도(Vesper-18시)를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루터의 기도에 대한 권장은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경건주의 시대에 와서는 가정에서 자유로이 기도하도록 권장했고 이를 돕기 위하여 일일 성경 읽기 책이 만들어져서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현대

20세기에 이르러 루터 교회는 아침 기도(Mette)와 저녁기도(Vesper-

11) 브레비아리움(Breviarium)의 내용은 쉽게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편을 중심으로 하여 표본적인 중보의 기도 내용과 찬송들과 성경 학습을 위한 것, 교부들의 글과 전설에 속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여행 중에도 손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히 기도할 때 사용되었다. Ibid., p. 294.

18시)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었으며 교회의 공적인 행사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근래에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 금요 기도모임(철야 기도회), 명상의 시간(Quiet Time: 큐티) 등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방편들이 생겨났다.

2.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

필자는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라는 고트홀드 뮐러(Gotthold Müller)의 글을 중심으로 믿음과 기도, 청의와 기도, 교회론과 기도, 성례와 기도, 중말론과 기도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믿음과 기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의 한 기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믿음은 곧 기도라는 ‘동일물’은 직선적이지 않다. 즉, ‘믿음이 강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다. 믿음과 기도는 변증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믿음은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기도는 믿음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기도 속에서만 구체화된다. 달리 말하자면 기도는 실현된 믿음이다

2) 청의와 기도

청의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죄속함이 이루어진다. 이 두 행위는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죄인은

기도 속에서 이러한 공의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의로 평가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르면 청의와 기도는 시간적으로 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청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며,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청의는 인간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는다. 청의는 기도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칼빈(Inst. III, 20, 1)과 루터(WA 42, 662, 1-4)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버지(abba)’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능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즉 청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넘어서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서 기도는 청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청의의 고유한 장소 또는 이러한 청의가 실현되는 고유한 방식이다.

3) 교회론과 기도

기독교적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기도 의식이다. 기독교적 예배를 설교와 성례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의 집례 중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기도가 설교 및 성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어난 것을 한 번 더 ‘명확히 하는’ 기도가 설교와 성례 다음에 온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에 대한 단순히 우연한 추가물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불가결한 매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예배 중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과 모든 세계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볼 때, 교회의 기도는 성찬식,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된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도는

말씀과 성례와 함께 기본적인 교회의 고백이다.

4) 성례와 기도

우리는 복음주의 교리학에서 설교, 성례와 함께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 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 은혜의 수단이 은혜를 전달하는 기구인 한, 기도는 그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도 또한 성례로 여겨야 한다. 기도에는 세례 때에 일어나는 것이 나타난다. 즉 인간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원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된다. 기도에서는 옛 영원이 거부된다. 기도에서는 세례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자리를 잡는다. 또한 기도에서는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타난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교회의 ‘원-성례(Ur-Sakrament)’ 라면, 기도는 모든 다른 성례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선행하고 소속된 ‘동반 성례(Begleit-Sakrament)’ 이다.¹²⁾

5) 종말론과 기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단지 두 가지뿐이다. 인간 속에서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날을 예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소명을 받으며, 인간의 세계가 변화하고 갱신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날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조용하고 은밀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의 예배(송영)는 구약(출 15:18; 시 5:12, 93:1~2, 96:10, 145:1 등)과 신약(마 6:13b; 롬 1:25, 11:36, 16:27; 갈 1:15; 딤후 1:17; 유 25; 계 7:12 등)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속되는 유일한 기도 형태이다. 믿음이나 소망과 같이 모든 형태의 기도도 그것들 외에 (간구, 代願 등) 언젠가는 종말론적 ‘응답’ 을 받아 충족되며, 이러한 것의 내세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바, 이것은 동시에 인간과 모든 창조물의 유일한 참된 구원이다. 칼빈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주기도문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앞 부분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다(Inst. III, 20, 35). 이것이 ‘종말론적 관점’ 에서 기도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말이다.

III. 칼빈의 기도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보면 칼빈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¹³⁾ 필자는 이것을 중심으로 칼빈의 기도신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12) 고트홀트 뮐러는 동반 성례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행위(예전, 좁은 의미에서의 성례, 하나님의 말씀 전달 및 그 외 다른 모든 행동)는 그 기원에 따라(하나님의 ‘명령’ 으로서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하여 내린 ‘명령’ 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하여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한편으로는 그의 위임과 합법성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및 이스라엘, 기독교인 그리고 인류 전체에 행하신 그분의 구원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S.91.

13)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서울: 풍만, 1985). 이 책은 한글 번역이 원본에 가깝게 되어 있기에 필자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다음의 책은 한글 번역상에 오류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John Calvin, 「한 · 영 기독교 강요 제3권」, 편집부 역(서울: 성문, 1990), pp. 634-775.

14) J. Calvin, 「칼빈의 기도론」, op.cit., pp. 9-15; J. Calvin, 「한 · 영 기독교 강요」, III, Ch.20, 1-3.

1. 칼빈에서의 기도

1) 기도의 성격과 가치¹⁴⁾

복음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롬 10: 14-17).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양자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증거를 인치시며(롬 8:16), 우리의 영혼을 부추기셔서 감히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게 하시고(롬 8:26),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롬 8:15).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하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신앙으로써 그것을 이미 보았다. 이제 기도으로써 그 보화를 캐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첫째,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늘 신성한 닻이신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뜨거운 소원으로 불타게 된다. 둘째, 우리의 소원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내어 놓으며 우리의 온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 알리기 부끄러운 소원을 전혀 마음에 품지 않게 된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즉 기도함으로써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시 145:15-16). 넷째,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뜨겁게 목상하게 된다. 다섯째, 우리가 이미 기도해서 얻은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기꺼이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시적절한 도움을 주어 보호하심으로써 백성을 도우시는 손길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한, 우리가 연약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2) 기도의 원칙¹⁵⁾

첫째 원칙은 경외심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한다. 성령께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둘째 원칙은 자신의 궁핍함을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궁핍함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비현실성을 추방할 수 있다. 셋째 원칙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자비를 구해야 한다.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원칙은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소망과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동기가 된다.

3) 불완전한 기도¹⁶⁾

하나님께서 공허히 여기셔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신앙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신자들의 기도는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얼룩져 있는 결점들을 간과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을 기도란 없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의 중보¹⁷⁾

15) Ibid., pp. 16-45; J. Calvin, III, Ch.20, 4-14.
16) Ibid., pp. 46-54; J. Calvin, III, Ch.20, 15-16.
17) Ibid., pp. 55-62; J. Calvin, III, Ch. 20, 17-20.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서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수치와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단
번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요일 2:1)요, 중보자(딤후 2:5)로 주셨다. 신자들 사이의 중보에 있
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요 14:6). 그리스도는 영원 영존
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5) 성자의 중보에 대한 반박¹⁸⁾

성자(聖者)의 중보에서 위로를 찾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의 영
예를 박탈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성자
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미친
짓일 뿐만 아니라 바보 중의 바보짓이다. 중보직은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그분 고유의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은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한 곳은
없다.

6) 기도의 종류¹⁹⁾

개인기도와 공중기도가 있다. 기도과 감사는 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
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개
인기도와 교회의 공중기도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언부언하
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란 마음을 감찰
하시는 하나님(롬 8:27) 앞에 쏟아 놓은 바로 그 속마음이 느끼고 있는 감

18) Ibid., pp. 63-80; J. Calvin, III, Ch. 20, 21-27.

19) Ibid., pp. 81-91; J. Calvin, III, Ch. 20, 28-30.

정이다(마 6:6).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7) 찬송과 언어의 사용²⁰⁾

기도나 찬송이 마음의 감동에서 솟아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나 기
도 중에 찬송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
님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며 집중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
중기도는 전체 회중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언어로 해야만 한다.

8) 주기도문 설명²¹⁾

주기도문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기도문은 여섯 가지 간구로 되

20) Ibid., pp. 92-97; J. Calvin, III, Ch. 20, 31-33.

21) Ibid., pp. 98-117; J. Calvin, III, Ch. 20, 34-43. 칼빈은 1537년 신앙교육서를 만들었다. 그 내용
은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과 인간, 주님의 율법, 신앙, 기도, 성례, 교회와 국가
의 질서 등이다. 칼빈은 1542년 두 번째 신앙교육서(Genfer Katechismus)를 만들었다. 그 내
용은 사도신경(Credo: 1-130문), 십계명(Dekalog: 131-232문), 기도(Vater-Unser: 233-295문),
성례의 가르침(Sakramente: 296-373문) 등이다. 이 책에서 칼빈은 질문과 대답의 교수법적 관
계를 이용했는데 총 373개의 질문과 대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373개의 질문과
대담을 총 55과로 다시 나누었는데, 이것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1년 52주간과 그 외의 축성일
(성탄, 부활, 성령강림) 셋을 합하여 매주 매과를 배우고 축성일에 한 과목씩 더 배우게 한 것
이다. 특히 이것은 성인의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설교를 대신하여 가르치도록 했던 것이다. 다음
을 참조하라.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pp. 49-138; 특히 기도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기도의 뜻, 기도와 응답관계,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 등을 다루고 있다(Ibid., pp. 107-121).

22) 김세윤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마 5-7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앙이 다루는 주제는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마 6:1-18)이며, 그 내용은 자선, 기도(마 6:5-
15), 금식이다. 이러한 유대교의 종교 행위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부분인 기도 중
에 주기도문(마 6: 9b-10)이 위치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 일부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실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에 위치하도록 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
성의 삶에서 가장 근본 도리이다. 필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세윤 교수는 주기도문이 여섯 개의 청원이 아니라 네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첫 세 개의 '당신' 청원을 하나의 청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
적으로 '당신'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청원이다. 또한 김세윤 교수는 마태복음 6장 33
절을 주기도문의 요약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을 참조하라.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서울: 두란노, 2000), pp. 24-56.

어 있다.²²⁾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앞 부분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해 주는 칭호이며, 형제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칭호이다. 첫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기꺼이 맞아들일 때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마 6:10).²³⁾ 이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부패에서 우리를 물러서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마 6:10).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통치하실 수 있게 하는 자기부인(self-denial)이 가능해진다.

9) 주기도문 설명2 ²⁴⁾

넷째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며 보호하시도록, 하

23)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내세의 삶(heavenly life)을 열망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현재의 삶(earthly life)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을 맹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국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리를 지어 대항해 오는 육체의 욕심을 모두 교정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모든 부패에서 깨끗함을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둘째 간구에 나타나는 합법적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서울: 풍만, 1985), pp. 112-113. 다음을 참조하라. J. Calvin, 「한 · 영 기독교 강요」, III, Ch. 3. 19; III, Ch. 6-10.

24) Ibid., pp. 118-133; J. Calvin, III, Ch. 20, 44-47.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일용할’이라는 형용사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무분별한 욕망을 제어하는 말이다. 다섯째 간구는 “우리 죄(빛)를 사하여 주소서”(마 6:12)이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의 선물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우리의 악한 신앙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증표로서 이 말씀을 더하신 것이다. 여섯째 간구(마 6:13)는 우리의 악한 욕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사단과 죄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로 끝난다(마 6:13). 이것은 앞에서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강화하고 있다.

10) 주기도문 설명3 ²⁵⁾

주기도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기도의 원칙이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여기에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다. 즉 간단히 집약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25) Ibid., pp. 134-136; J. Calvin, III, Ch. 20, 48-49.

형태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11) 끈기 있는 기도²⁶⁾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에 끈기 있는 지속성(constancy)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2. 칼빈의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필자는 칼빈의 소선지서 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기도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칼빈의 기도의 실체는 참으로 진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쉴(Hans Scholl)의 책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의 부록(Anhang)에는 1557년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한 칼빈의 자유스러운 기도를 인용하고 있다.²⁷⁾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칼빈이 소선지서를 주석하면서 한 기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²⁸⁾ 칼빈의 기도에 특별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Allmächtiger Gott!)”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도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이라는 말 대신 단순히 아멘으로 기도를 종결한다. 그러나 “아멘” 직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unseres Herrn Jesus Christus)”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필자는 관찰했다. 필자가 칼빈의 기도의 실재를 연구한 결과 칼빈은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라서 기도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주석하며 기도한 칼빈의 기도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1) 호세아 주석에 나타난 기도

(1) 길 잃은 어린 양(호 4:14-18)²⁹⁾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감사하게도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불러모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의 띠로 우리를 매어 주시고,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올바로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비록 사단이 여기 저기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본성이 유혹에 빠져 죄악으로 기울어져 간다 할지라도 당신께 순종함으로 이를 계속 지켜 나가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띠로 우리를 잡아 매시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소서. 특별히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거하도록 하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당신의 독생자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켜 주시고,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당신의 복음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확고히 살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2) 준엄한 말씀(호 4:19-5:4)³⁰⁾

26) Ibid., pp. 137-142; J. Calvin, III. Ch. 20, 50-52.

27) Hans Scholl,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Zwingli Verlag Zürich, 1968), S.271-308.

28) 영국의 칼빈번역위원회(Calvin Translation Society)는 52권의 칼빈의 지서들을 방대하게 펴냄으로 영국의 언어를 풍부하게 했다. 그들의 번역은 간단한 편집을 위하여 다시 수정되었다. 이것은 주로 소선지서에 대한 주석이었다. 수백 번이 넘는 그의 강의와 기도들은 모두가 교훈적 이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 책을 참고하라. Charles E. Edwards, 「칼빈의 경건 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p.18-166.

29) Hans Scholl,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Zwingli Verlag Zürich, 1968), S.282.

30) Ibid. S. 283.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며, 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 된 길에서 돌이켜 당신께 용서를 구하곤 합니다. 오, 당신의 옛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당신의 옛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거절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당신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제 전적으로 당신께 복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역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3) 사랑과 믿음(호 6:5-11)³¹⁾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어떠한 기회만 있으면 쉽사리 당신의 곁을 떠나게 되나이다. 오 주여, 이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도움으로 강건하여 순전한 믿음 가운데 지나게 해 주소서. 날마다 당신에게서 배우게 하시며 당신의 성령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되 결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게 인도해 주소서. 당신을 속이려 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봉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당신을 증거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한 순전하고 거룩한 희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4) 죄악과 징벌(호 9:6-9)³²⁾

31) Ebd., S. 287.

32) Ebd., S. 29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먼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으며, 죄의 어두움을 좇지 않게 하심이며,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해 주시고, 더욱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사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며 당신을 위한 희생으로 우리 자신들을 사용케 해 주소서. 당신께서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취할 때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5) 그리스도의 신성(호 11:11-12:5)³³⁾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오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당신의 독생자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구하기는 전적으로 당신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6) 은혜를 기억함(호 13:1-6)³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드럽고 평온한 음성을 들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사 죄악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오, 하나님,

33) Ebd., S. 301.

34) Ebd., S. 304.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우리 자신을 당신께 복종시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늘 듣게 하소서. 당신을 거역하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만물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사 세상의 으뜸이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7) 참된 왕이 되심(호 13:6-13)³⁵⁾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되, 기쁨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죄악의 위협에서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지여, 바라기는 우리로 당신의 위엄 가운데 지내게 하심으로 늘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심이었사오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소서. 당신의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지켜주소서. 아멘.

(8) 은혜로운 부르심(호 13:14-14:3)³⁶⁾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너무나도 자주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오 하나님, 오직 믿음만으로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가 부서지는 그 날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의 성령의 도움으로

35) Ebd. S. 305.

36) Ebd. S. 306.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지여, 구하나니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나눠 갖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2) 요엘 주석에 나타난 기도³⁷⁾

(1) 경배와 기쁨(욥 1:1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인간이 육신의 불완전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아실 줄 압니다. 실상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여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로 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하나니, 당신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알게 하시고 당신 말씀의 표준을 따라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저울질하여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 는 일을 행함으로 당신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멘.

(2) 나팔소리(욥 2: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날마다 그토록 깊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번에 보여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그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종이 되어 헌신하여 살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남에게도 가르치며, 그들도 또한 당신께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귀한 깨

37) Charles E. Edwards,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p.39-55.

우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항상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곧 깨어 응답도록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당신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아멘.

(3) 성령을 부어주심(을 2:2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로 이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사는고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당신의 도움이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시어 날마다 하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이 늘 내게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이 되어 늘 왕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려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4) 경고(을 2:30-3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들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만일 당신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온갖 죄악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오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통한 안위를 얻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 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일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당신께서 보여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인내하면서 싸우게 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얻을 때까지 싸우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5) 여호와와 이름을 부름(을 2:3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중보자를 통하여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로우신 당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인자한 음성을 늘 받아들이면서 기도함으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비록 수많은 위험과 압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당신을 더욱 간절히 부르게 하시며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당신께 드리는 기도로 감당케 하소서.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와 연합하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모든 축복을 소유하며 살게 해 주소서. 아멘.

(6) 축복의 체험(을 3:17)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양한 형태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며, 또한 육체와 혈의 싸움만이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 간절히 구하나니 이 전쟁터에서 오직 인내하면서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채찍질 받을 때라도 겸손히 당신의 훈계를 받으며 당신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당신을 슬프게 할 때라도 늘 우리의 마음

이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소망 중에 당신의 독생자를 양망하게 하소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소서. 아멘.

3) 아모스 주석에 나타난 기도³⁸⁾

(1) 제사를 드림(암 4: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계명을 이루어 놓으시고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당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원컨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케 해 주시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칠 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겸손 등 이 모두를 당신께 드리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영적인 헌신을 함으로 주의 이름을 진실로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2) 엄숙한 교훈(암 4:1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이토록 인자하심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주시는 훈계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어 우둔하게 될 때라도 당신께서는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생활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생활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38) Ibid., pp.56-66.

(3) 목자와 선지자(암 7:1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사단의 고삐를 느슨히 풀어 주시기에,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종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의하여 보냄을 받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하사 자신들이 감당할 임무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게 하소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교묘한 음모로 그들을 대적하든지, 혹은 무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든지 간에 종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들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당신께 순종함으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어둡고 신앙 생활이 익숙지 못한 자에게 사단이 뿌려 놓은 불신앙의 안개를 당신께서 거두어 주시고, 온 세상에 속한 사단을 정복하는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의의 태양이신 당신의 아들께서 임하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독생자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온갖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4) 하나님의 능력(암 9: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심으로 만물이 당신의 명령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당신께서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이제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같이, 우리도 당신의 이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당신에게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기게

하소서. 아멘.

4) 오바다 주석에 나타난 기도³⁹⁾

(1) 지혜있는 자를 멸하심(욥 1: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지켜주셨으며, 또한 우리의 구원도 당신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당신의 뜻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오니 군세게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죄악의 힘에 의해 이리 저리 끌려 다니지 않도록 권능을 주소서. 당신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순전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나이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영혼들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양들이 우리의 목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목자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되, 당신께서 아들의 보혈로 인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얻기까지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참아가게 하소서. 아멘.

5) 요나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⁰⁾

(1) 담대하게 부르짖음(욥 3: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찬 나머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사오니, 당신의 종 요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39) Ibid., pp.67-69.

40) Ibid., pp.70-75.

당신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어떤 죄악과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보호 속에서, 또한 당신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소서. 이것은 이미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 약속에서 떨어져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나눌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당신께 복종하며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지켜 주소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욥 4:10-1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것도 인간을 향한 당신의 염려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게 하셔서 우리도 당신께서 보여 주신 본을 따라 이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룩하고 축복된 천국의 생활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6) 미가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¹⁾

(1) 선지자의 탄식(미 1:9)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기록된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

41) Ibid., pp.76-92.

시웁니다. 오, 당신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당신 안에서 즐거워 하면서 살아가도록, 또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바라보오니,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남에게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옳은 길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축복 된 삶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살게 하소서. 아멘.

(2) 성령의 권능(미 3: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말씀은 선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 모든 종들이 하늘의 권능을 입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되,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하여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항상 성도들의 생애가 당신의 권능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당신에 의하여 천국의 거룩한 삶에 항상 인도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3) 민족들의 친교(미 4: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로 하여금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토록 오래 전에 예언하게 하셨으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당신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 우리로 하여금 제각기 흩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당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당신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모든 일 속에서 체험토록 하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진실로 경배하면서 서로 형제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남의 선한 것을 도모하도록 애쓰게 해 주소서. 우리가 서로 간의 친교를 더욱 나타낼수록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소서. 아멘.

(4) 영원한 믿음(미 4: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아들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연합하였사오니, 우리는 종종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쉽사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불의에 대하여 인내하며 싸울 수 있게 하소서.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일어나는 어려움을 견디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눈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비천한 지경에 빠지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 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 영혼이 당신의 영원한 구원을 앙망하게 하시고, 그 때에 당신의 아들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얻게 된 무한한 축복을 기쁨으로 맞게 하소서. 아멘.

(5)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미 6: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과 복음을 주심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으사 당신의 은혜로우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웁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당신의 계명이나 당신의 자비로우신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디에

서나 우리 자신을 당신께 복종시키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을 이루게 하심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들을 굳게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감언이설로 속이려 든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당신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유업을 받아서 즐거움으로 넘치는 생활을 할 때까지 지켜주소서. 아멘.

(6)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기도(미 7:14)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공의를 행하사 그 어디에서나 당신의 심판을 이루시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옛 백성들을 당신의 성도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당신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당신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을 사함 받게 하셔서 더욱 회개하고 또한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날마다 당신께 기도로써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당신 안에서 품고 있는 우리의 소망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7) 나훔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²⁾

(1) 니느웨의 멸망(나 2:8)

42) Ibid., pp.93-9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토록 많은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견고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은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당신의 입김에는 다 날라갈 수 밖에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진실로 당신께 겸손히 굴복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영원한 하늘 나라가 되도록 하소서. 아멘.

8) 하박국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³⁾

(1) 파수대(합 2: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됨을 아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서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높은 성루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비록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이 속히 실행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며, 더욱 당신께 가까이 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2) 탐욕에 대한 징벌(합 2:6)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극히 겸손하시며 낮아지시어 우리의 인생 행로에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

43) Ibid., pp.96-107.

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빈곤함을 참을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당신의 부유하심으로 만족케 하여 주소서. 이러한 것을 당신께서 이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셨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충분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당신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3) 구원의 병거(합 3: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 하는 백성들을 부르사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염려하고 돌보심을 보이셨 나이다.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움 가운데 보여진 당신의 아들을 통한 약 속에서 우리가 멀리 나가 방황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겸손해짐으로 당신의 아들 가운데 살면서 당신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옛 성도들을 지켜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 지가 되시어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9) 스바냐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⁴⁾

(1) 교만함과 멸망(습 2:1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십자가의 전쟁터로 우리를 불러내 시고 크나큰 권세를 가진 원수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 을 두려워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심을 아 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옛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되돌

44) Ibid., pp.108-116.

이켜 볼 때에,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 앞에서 압박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 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 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체험을 통 하여 우리 인생들이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됨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2) 깨끗한 입술(습 3:9)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가는 동안 당신 곁을 떠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 는 길이 열려져 있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순 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면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 할 때라도 당신의 성령으로 깨끗케 하사 입술로만 당신께 기도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 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오직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과 연합함으로 우리를 위하 여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을 나누어 갖게 하소서. 아멘.

10) 학개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⁵⁾

(1) 배은 망덕함(학 1:2)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심인 줄 아오니, 오,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시련들이 그 얼마나 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적인 성전

45) Ibid., pp.117-125.

을 건축하는 자들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토록 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케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도록 애쓰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소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새로운 삶을 이룰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2) 영광스런 성전(학 2:8)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얽매어 살아감으로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 나감으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높은 것을 바라봄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거룩한 생활의 온전한 열매를 당신께 드리시기까지 영적인 헌신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 스가랴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⁶⁾

(1) 참된 제사장(슥 3: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가운데서 우리를 충성스런 제사장들로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께 영적인 희생을 드리도록 하셨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덧입고 사단과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⁴⁶⁾ Ibid., pp.126-157.

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당신께서 힘 주심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소서.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늘 당신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있게 해 주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한 몸의 지체 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신께서 머리가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2) 인애와 긍휼(슥 7:9)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친절과 사랑을 행함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행하므로 당신께서 부르신 부름이 헛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뤄나가며 서로의 유익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소서. 그럼으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고 당신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12) 말라기 주석에 나타난 기도⁴⁷⁾

(1) 이방인들을 부르심(말 1:11)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끌어 주사 딱딱한 계명의 그늘 아래로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고귀한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나이다. 더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셨으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희생으로도 당신께 헌신케 하셨으니, 이는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얻으시는 참된 희생이 되는 것

⁴⁷⁾ Ibid., pp.158-166.

입니다. 구하오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임함을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며, 당신의 선지자가 선포한 바와 같이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을 통하여 들림을 받게 하소서. 이는 마치 독생자의 유일한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2) 그리스도의 선구자(말 4:5)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우리가 게으른 까닭에 비록 당신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도우심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애쓰게 하소서. 그러므로 계명과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의 음성과 또한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사,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장차 오실 위대한 구원자를 바라는 소망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고 승리와 영광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3. 칼빈의 예배 모범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⁴⁸⁾

칼빈이 1542년 제네바 교회에 사용하였던 예배 모범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회 기원, 죄의 고백, 사면의 선포, 설

48) 칼빈의 예배 모범은 그가 1538-15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종교의 박해로 프랑스로부터 피난 온 동족들을 위한 교회의 예배에 사용하던 것이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1542년 제네바 교회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545년에 다시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 예배 모범서에서 칼빈은 주장하기를 평상시 묵시는 기도(묵회)에 대하여 늘 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설교할 시간과 대상에 따라 본을 삼아야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서울: 이레서원, 2000), pp. 379-396.

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묵회의 기도), 주기도문과 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회 기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2) 죄의 고백

나의 형제여, 당신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죄를 고백하며 중심에서 나의 말을 따라 하십시오.

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 앞에서 거저됨 없이 우리가 불쌍한 죄인이고 죄와 더러움에서 태어났으며 악을 즐겨 행하고 모든 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의 범죄로 끊임없이 거스렸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를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서 우리는 파멸과 부패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막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하시며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제거하심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비추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시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사면의 선포

당신들 각자는 진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

하며,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 당신의 뜻을 불쌍한 종들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율법의 의 안에서 그것을 보여 주기를 기뻐하셨나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당신만을 섬기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쓰시고 새겼나이다. 우리가 행한 죄악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넘치도록 느끼게 하시나이다. 이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

4) 설교 전 기도⁴⁹⁾

하늘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찾으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비의 눈길을 불쌍한 종들에게 주옵시고, 너무나 그릇되어서 당신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많은 죄악을 계수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우리 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빛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주는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이 그 상전에게, 자녀가 그 아비에게 함같이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아오며, 그것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49) 회중이 찬양하는 동안에 목사는 단 위로 올라가 설교 전 기도를 한 후 설교를 시작한다고 칼빈은 제시한다.

여, 이름이 거룩히…….

5)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당신은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언약을 갖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얻도록 당신께 나아가는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당신이 우리 위에 두신 것, 위의 것과 그 나라를 위해 구하고, 그 뒤에 당신의 백성,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약속을 신뢰하며 당신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면전에 모였기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전심으로 당신께 구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당신의 기뻐하심과 홀로 나타내신 뜻을 바라게 하소서.

또한 모든 제후와 장들, 즉 당신의 공의와 지도자로 세우신 종들, 특히 이 도시의 장들을 위해 비오니 홀로 선하시며 정말로 소중하신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전하옵시고 그 안에서 늘 더욱 넘치게 하사, 그들로 진실한 믿음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시며 당신이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이 선지자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목양과 복음 전파를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나라의 충성되고 고귀한 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불쌍하고 방황하며 길을 잃은 양들을 모아 목자장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려는 목표를 늘

갓게 하사, 그들로 매일 자신을 헌신하고 주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의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 뒤에 우리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속을 통하여 온 세계의 구원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나아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당신이 시련을 주고, 그것이 가난이든, 옥에 갇힘이든, 병이나 추방이나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는 영적인 시련이나 간에 십자가와 고난으로 별하신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 의탁합니다.……적그리스도인 군주 아래 흠어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공개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유를 박탈당한 우리의 모든 가련한 형제들을 하나하나 당신께 맡깁니다. 옥에 갇히거나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핍박 당하는 자들까지도 말입니다.……끝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거룩한 양식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올바르게 그리고 교만함 없이 깨닫게 하소서.……이로써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라 우리의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새로운 삶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6) 주기도문과 기도(축도)

여기서 목사는 주기도문을 간단히 낭독하고, 그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하고, 그 뒤에 목사는 집회를 파한다. 그리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며 지켜 주시길, 주님은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취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당신들에게 돌리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7) 성만찬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단지 그의 피와 살

을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께 바쳤을 뿐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전해 주시려 하시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 주사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대한 타는 열망으로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소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보내사, 더 이상 온전히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성을 좇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롭고 영원한 연합, 즉 은혜의 띠에 참여하는 것이며, 당신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또 친밀히 사랑받는 상속자로 육과 영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당신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행위와 말씀으로 당신의 성호를 찬양케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며, 복된 생각을 기리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의 죽음에 있는 선한 뜻을 알리게 하사, 새롭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며, 모든 자를 영접하며 더욱 큰 믿음으로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4. 칼빈의 기도신학에 기초한 논자의 기도의 실제

필자는 이상에서 살핀 칼빈의 기도신학을 토대로 하여 필자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개회 기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회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회개에로의 부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떨치시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3) 죄 고백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의식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일을 절대화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맘모니즘에 빠져 돈을 섬겼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여 갈등 속에서 오는 증오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너무 빨랐으며 선을 행하기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우리도 동시에 우리에게 죄지은 자에게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용서의 확증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풀어주신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5) 설교 전 기도

궁핍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와 생명수를 주사 영혼을 시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하

나눔께서 주신 양식에 의해 살게 하시며,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시며 화평하게 하소서. 군중 목사님들과 민간 목사님들, 군 중병들에게 선교적 열정과 새 힘과 봉사의 마음을 주사 장병들을 섬기게 하소서.

지금도 부대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불안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사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소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외로운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친구가 되어 주사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육신의 욕망으로 범죄하여 헌병대 영창에 수용된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재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으로 갈아 입게 하소서.

진급과 보직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주사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저 북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한반도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믿게 하시며,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기도(축도)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아멘.

8) 성만찬 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더 이상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성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연합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며,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소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추수감사절 죄 고백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헛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의식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피조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여 우리 자신의 땀과 힘을 우리의 공로로 내세우면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일을 절대화하며 조급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여 우리의 곡식 창고만을 지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열매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첫 번째 강림절 죄 고백의 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절대화하여 기도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행복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귀를 스스로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나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사 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첫 번째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기도의 정의를 내린 후 기도의 역사적 배경, 현대 기도신학의 교리적 문제(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

ologie)라는 고트홀드 뮐리의 글을 중심으로 믿음과 기도, 청의와 기도, 교회론과 기도, 성례와 기도, 종말론과 기도 등을 연구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기도신학, 칼빈의 소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의 실제, 1542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칼빈의 예배 모범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독일개혁신교회 예전서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필자 기도의 실제 등을 살펴보았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기본 구조는 기독교적 기도의 특성이며, 기독교적인 모든 기도예에 관한 학설과 그 실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다. 기도는 신학의 심장(das Herz der Theologie)이다. 기도는 믿음의 시금석이며 기도신학은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 칼빈의 기도예에 대한 정의처럼 기도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칼빈의 기도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음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롬 10: 14-17).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양자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증거를 인치시며(롬 8:16), 우리의 영혼을 부추기셔서 감히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게 하시고(롬 8:26), 아바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짖게 하신다(롬 8:15).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하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신앙으로써 그것을 이미 보았다. 이제 기도으로써 그 보화를 캐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다.

2)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가? 첫째,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늘 신성한 뜻이신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뜨거운 소원으로 불타게 된다. 둘째, 우리의 소원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내어 놓으며 우리의 온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 알리기 부끄러운 소원을 전혀 마음에 품지 않게 된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즉 기도함으로써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시 145:15-16). 넷째,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예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뜨겁게 묵상하게 된다. 다섯째, 우리가 이미 기도해서 얻은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기꺼이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시적절한 도움을 주어 보호하심으로써 백성을 도우시는 손길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한, 우리가 연약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3) 기도의 첫째 원칙은 경외심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한다. 성령께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둘째 원칙은 자신의 궁핍함을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궁핍함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비현실성을 추방할 수 있다. 셋째 원칙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자비를 구해야 한다.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기도예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원칙은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소망과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동기가 된다.

4)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수치와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단번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요일 2:1)요, 중보자(딤후 2:5)로 주셨다. 신자들 사이의 중보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요 14:6). 그리스도는 영원 영존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5) 주기도문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앞 부분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기도의 원칙이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여기에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다. 즉 간단히 집약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형태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끈기 있는 지속성(constancy)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칼빈의 소신지서 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기도를 발췌하여 소개했다. 이러한 칼빈의 기도의 실체는 참으로 진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한스 슐(Hans Scholl)의 책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의 부록(Anhang)에는 1557년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한 칼빈의 자유스러운 기도를 소개했다.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칼빈이 소신지서를 주석하면서 한 기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했다. 칼빈의 기도예 특별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Allmächtiger Gott!)”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도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 대신 단순히 “아멘”으로 기도를 종결한다. 그러나 아멘 직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unseres Herrn Jesus Christus)”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필자는 관찰했다. 필자가 칼빈의 기도의 실재를 연구한 결과 칼빈은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라서 기도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주석하며 기도한 칼빈의 기도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필자는 칼빈이 1542년 제네바 교회에 사용하였던 예배 모범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를 소개했다. 그것은 개회 기원, 죄의 고백, 사면의 선포, 설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목회의 기도), 주기도문과 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필자의 기도의 실재를 소개했다. 이제 우리는 칼빈의 기도신학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 특히 군인교회에 올바른 기도신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빈이 강조했던 주기도문과 일치한 기도문,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모범서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도예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적용으로 한국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1907년의 평양 대부흥보다 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부록〉 독일 개혁교회의 예전서에 나타난 기도의 실제

이것은 독일 개혁교회의 예전서(Reformierte Liturgie) 중 교회력에 맞춘 감사의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Dankgebete und Fürbitten zum

Kirchenjahr)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⁵⁰⁾

1) 강림절(Advent)⁵¹⁾

하나님, 당신께서는 혼탁해진 세상을 위한 빛이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께로 끌어당기십니다. 당신께서는 세상에서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시어 약하고 상처받은 자가 크게 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빛이 우리의 생명 위에 있고, 우리가 그 빛의 수단과 활동을 완성하여 당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강림절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자비심으로 명석함과 용기를 갖게 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께 어두움이 깊은 곳에, 영혼에 상처를 받은 외로운 사람이 어두움을 응시하는 곳, 교도소와 의탁자 시설, 병원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의 빈곤이 감추어진 곳에 당신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어둠을 섬기는 자를,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이익을 얻는 자를, 약한 자를 방관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강한 자를 멈추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평화를 위하여 어디서나 증인이 되는 당신의 교회를 도와 주소서. 이 강림절 주간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그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시고, 당신께서 강림하시는 빛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하소서.

2) 성탄절(Weihnachten)⁵²⁾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 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 주신데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부끄럼

50) *Reformierte Liturgie*, im Auftrag des Moderaments des Reformierten Bundes erarbeitet und herausgegeben von P. Bukowski, A. Klompmaier, Ch. Nolting, A. Rauhaus, F. Thiele, Neukirchen 1999, S.223-255.

51) Ebd. S. 223.

52) Ebd. S. 226.

없이 당신 앞에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당신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더욱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낙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강한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께 바로 오늘 더욱 약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서 더 이상 집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곧 뿌리가 뽑힌 자, 평안을 잃은 자 그리고 회의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혼자 있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께 성탄절의 메시지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마음을 담은 사람을 위하여, 조롱하는 사람과 냉담한 자를 위하여, 실망한 사람과 비뚤어진 사람을 위하여, 사랑 대신 미움을, 평화 대신 죽음을 설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부드러워지고 변하게 그리고 당신과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신께 오늘 소박하게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어린이의 기쁨을 지켜 주소서. 그리고 즐거이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생명의 기쁨을 보존하여 주소서.

3) 송구영신(Jahreswechsel)⁵³⁾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올해의 마지막 저녁에 선사하여 주신 시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것을 보존하시고 정당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소서. 지난 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저녁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세상을 둘러싼 우리의 걱정거리를 조용히 한 번 더 당신 앞에서 펼쳐 놓고

53) Ebd. S. 229.

자 합니다. [침묵] 하나님,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도와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 앞에서 개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께 더 이상 힘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소서.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소서.

4) 고난주간(Passion)⁵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의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비겁함 그리고 모든 거절을 훨씬 넘어서는 당신의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걸치레나 변명을 하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더 진실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과 행위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배신하였던 사람들을, 슬퍼하고 있을 때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게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거절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을 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해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당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죄를, 비록 우리가 원하지만 털어낼 수는 없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과 훈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내기 위하여 당신의 자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54) Ebd, S. 233.

5) 부활절(Ostern)⁵⁵⁾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죽어야 할 존재에 대하여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게서 권세를 빼앗고 최종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께 아직 죽음의 힘 앞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늙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도움을 찾고 힘을 얻도록 평화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보내 주소서. 우리는 당신께, 죽음의 권세에 대항하려고 고투하는 모든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 조무사를 위하여, 학자와 정치인, 그리고 사회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질병의 치료를 통하여, 평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이들의 이해가 용기를 주고 이들의 도움이 희망을 선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창조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생명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선사하여 주소서.

6) 추수감사절(Erntedankfest)⁵⁶⁾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께서 우리와 당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매일 아침 새로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굶주림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

55) Ebd, S. 237-238.

56) Ebd, S. 249.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 오시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지나친 탐욕이 올바른 정도를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지 않고 주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꾸밈 없이 취하고 간구하며 요청하여도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일용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참 고 문헌

-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Reformierte Liturgie, im Auftrag des Moderaments des Reformierten Bundes erarbeitet und herausgegeben von P. Bukowski, A. Klompmaker, Ch. Nolting, A. Rauhaus, F. Thiele, Neukirchen 1999.
Hans Scholl, *Die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 Zwingli Verlag Zürich, 1968.
Chung, Il-Ung. *Die Theologisch und Didaktische Bedeutung des Evangelischen Erwachsenenkatechismus für die kirchliche Erwachsenen Idung in Korea*. Bonn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 Universität zu Bonn, 1984.
Calvin, John. 「칼뱅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 경건, 1995.
_____.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 서울 : 풍만, 1985.
_____. 「한·영 기독교 강요 제3권」. 편집부 역. 서울 : 성문, 1990.

- Comenius, J.A.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정일웅 역. 서울 : 여수론, 1996.
_____. 「대교수학」. 정일웅 역. 서울 : 창지사, 2002.
_____.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 정일웅 역. 서울 : 여수론, 1999.
Davies, Horton. 「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Edwards, Charles E.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6.
Großmann, Klaus/ Schröer, Henning(Hg.). 「코메니우스의 발자취」. 정일웅 역. 서울 : 여수론, 1997.
Twardella, Günter. 「기독교 신앙의 초석」. 정일웅 역. 서울 : 한국로고스 연구원, 1995.
Runia, Klaas/ Stott, John R.W. 「하나님 나라의 신학」. 정일웅 역. 서울 : 한국로고스연구원, 1992.
Schröer, Henning(Hg.). 「개신교 신학 연구개론」. 정일웅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5.
Wallace, Ronald S.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 장신대 출판부, 1996.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1993.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 솔로몬, 1993.
_____.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 이레서원, 2000.
_____.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_____.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 여수론, 1999.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 두란노, 2000.

정일웅. Katechismus 교육에 대한 연구(1)－그 개념연구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1984 겨울호.

_____. Katechismus 교육 연구(2)－견신례와 견신례 교육의 의미－. 「신학

지남」. 1985 봄호.

Schaller, Klaus. 인간의 인간성 교육－교육의 현재적인 문제에 대한 코메

니우스의 비판적 공헌－. 정일웅 역. 「신학지남」. 1997 여름호.